

선교회지 JUL 2012 '여름' 호 통권 11호

Universal Care

“北 方 宣 教”

북방 선교와 그 전략 / 황필남 선교사

북방 선교와 한민족 / 김우섭 선교사

공산권 선교 / 김영제 목사

My Vision

북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 신현우

“2012 Mongol Outreach”

하나님의 꿈/홍지혜

Universal Care 후원 기관 소개
/ “ANCA”

Universal Care 선교 장학생
나랑 체첵크

2012.07.07.

Universal Care

'Universal Care'는 의료 및 교육, 찬양 등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선교사를 후원하고, 열방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이 되기 위하여 결성된 선교회입니다

발행인 / 정진호

편집/ 편집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2

트리플타워 A동 303호

Tel 032) 329-2875

Fax 032) 329-2879

www.cyworld.com/universalcare

발행일 : 2012.07.07

표지설명



'북한에서 연해주를 관통하는 철도! 저 넘어 보이는 곳이 북한땅입니다. 주님! 이 민족에게 속히 통일을 주셔서 이 길을 통하여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Contents

01 Prologue 북방선교! /정진호

北方宣教

03 북방 선교와 그 전략 /황필남 선교사

11 북방선교와 한민족 /김우섭 선교사

16 공산권 선교 /김영제 목사

24 북방선교와 북한선교 /강다니엘선교사

My Vision

28 북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신현우

34 "2012 Mongol Outreach"

36 하나님의 꿈/홍지혜

40 Universal Care 선교 장학생 - 나랑 체첵크

42 Universal Care 후원 기관 소개 / "ANCA"

선교지에서

49 성경 번역 선교회(G.B.T) 엄천영, 안수아 선교사

53 남아공 배성호 선교사

57 필리핀 신동주 선교사

61 선교사 기도제목 & 선교회 소식

68 Universal Care 는

Prologue

북방선교!

“다시금 성실과 인내와 눈물로,
시간의 힘을 연해주의 땅에 쌓아가길 소원합니다.”

정진호

월드와이드교회

Universal Care Member

연세U치과 원장



2012년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6월! 몽골 아웃리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싫었던 것처럼, 몽골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웃리치는 처음엔 회생과 내려놓음의 시간인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채움의 시간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동안 우리 선교회가 후원하였던 몽골 에르덴 호의 전도사님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고, 적은 액수의 후원이었지만, 몽골의 영적 기둥으로 쓰일 한 사역자가 우리 선교회의 후원을 통하여 공부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그동안 계속하여 동역하여 왔던 트무르 전도사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선교회와 멤버들을 기억하며 기도한다”는 고백을 들을 때,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노라, 보고 있노라 하며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 안에는 성실과 인내와 눈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힘 속에서 싹터 맺혀지는 열매를 확인할 때마다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가 가득하길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2년 하반기를 시작하며, 우리는 러시아 연해주 정태화 선교사님을 모시고 정기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땅입니다. 러시아에 흘어진 고려인들의 마음에 고향 땅처럼 불리는 ‘원동’이라는 곳이 바로 **연해주 우수리스크**입니다. 북한에서 연결되는 철길이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첫 정거장이 바로 이곳 우스리스크입니다. 그곳을 통하여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끌려 가는 수많은 북한의 동포들이 거쳐가는 바로 그 땅입니다. 중국과 맞닿아 있고 북한과 바로 연결되는 그 땅을 향해 이제 나아 가길 원합니다. **다시금 성실과 인내와 눈물로, 시간의 힘을 연해주의 땅에 쌓아가길 소원합니다.**

북방선교!

이젠 육로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물밀듯 쏟아지는 복음의 행진이 이 철길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날을 상상하며, 먼저 그 길을 열어가는 Universal Care가 되길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北 方 宣 教”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통사자리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에 재물을 먹으면 그들이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시야 61: 6)



北方宣教 I.

북방 선교와 그 전략

황필남 목사

몽골 선교사

Universal Care 상임고문



서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북방 선교에 부름을 받았고, 동시에 세계 선교에 대한 도전과 부르심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연해주 선교사를 초청하고 집회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기대가 크다. 본인은 이 글을 통하여 북방에 대한 현황과 그 실상 그리고 선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북방과 북방 선교에 대한 상황

먼저 북방이라함은 어디를 두고 말하는지 그 용어를 정의하고, 북방 선교의 간략한 역사를 말하겠다.

1) “북방”에 대한 용어정의

“북방”이라 함은 대한민국으로 기준으로 북쪽에 포함하는 모든 지역을 말하고 그 지역을 선교하자는 의도에서 북방선교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북방이라 하면 주로 중국의 동북삼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을 포함하는 중국의 동북지역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몽골족(외몽골과 중국내 내몽골)을 말하고, 여기에 북한과 러시아를 포함한다. 어떤 사람들은 서북방인 구소련 지역인 러시아중에서 우리 민족의 일부인 고려인들이 많아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을 포함해서 북방 선교에 넣는 이들도 있다.

2) 북방 선교의 역사

- (1) 대한 예수교 장로교단은 1912년 중국 산동 성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방지일 목사를 파송하였다.
- (2) 해방 후 한국에서 북방 선교의 선구자는 극동 방송이다. **극동방송**은 특히 중국과 북한 지방의 선교를 위하여 2012년 금년으로 56년 째 방송선교를 하고 있다.
- (3) 1984년 방송선교를 하던 김영국 장로가 당시 공산권 선교가 아주 어려울 때 방송으로 복음을 전한 후 각 교단의 주요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연결시켜 러시아를 선교하였다. 주로 방송선교와 신앙서적과 성경을 배포하였다. 그런 후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소련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으며 이들과 연관되어 파송 받은 선교사들은 교회를 개척하였다. 지역은 구 소련으로 모스크바, 시베리아,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 사할린, 캄차카, 알마타,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등이다. 초기 선교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석원태 목사, 정진경 목사들이 적극 도왔다
- (4) 북한 선교는 여러 루트를 통해 전개되어 왔다. 방송 선교로는 극동방송, 열린 북한 방송, 북한 선교 방송, 북한 개혁 방송 등이다.
- (5) **모퉁이들 선교회**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에 성경을 배달하면서 북방 선교의 일부를 담당해 왔다. 책임자 이삭 목사는 미국 시민권을 활용했다.
- (6) 1992년 **연변 과학 기술대학** 설립은 중국 선교와 조선족 선교와 북한 선교에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 2010년 평양 과학 기술 대학이 개교되는 영향을 미쳤다. 메렐랜드 대학교 교수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 김진경 총장이 이 일

- 을 해 냈다.
- (7) 자신을 숨기거나 공식적으로 드러내 놓고 조선족 양육, 탈북자 선교, 신학교 사역, 지하 교회 지도자 양육 사역등은 중국 선교에 공적으로 세우기도하고, 무분별한 선교, 중복 투자, 준비 안된자들 가서 선교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신실한 선교사들의 뿌린 씨앗만큼 거짓없이 싹들이 올라오고 열매들이 맺고 있다.

2. 북방 선교의 성경적 당위성

1) 북방 선교를 위한 일반적인 당위성

우리가 세계 선교를 논할 때 북방 선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부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중요성을 부여한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남한에 5천만명이 살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북방 지역에 러시아에는 고려인, 중국에는 조선족, 그리고 북한에도 2천 2백만명이 살고 있어 그들도 복음을 들고 구원을 받아야 하고, 더욱이 같은 형제들인 조선족과 고려인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과 이들이 선교의 징검다리 역할 때문에 북방 선교가 중요하고 강력하게 필요성을 발견한다.

2) 북방 선교의 성경적인 당위성

성경에서는 북방 선교를 무엇이라고 보고 있으며 어떻게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펴 보겠다.

(1) 누가복음 9:51-56절에는 남북 이스라엘 선

교역사가 남쪽 한국과 북쪽의 북한과의 역사와 선교 상황과 비슷하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한국에서는 서울과 평양처럼 대조된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곳을 다니며 선교 비전을 제시하며 제자훈련을 시키셨다. 그 결과 예수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회개와 전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미움 등으로 원수의 나라에 적개심과 미움과 대적과 대결보다는 우회하고 사랑을,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극동을 선교해야만 한다는 의식이 짙트게 된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과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식민지 생활을 하게 했던 관련국들이다. 그리고 이들 나라에 한국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요구했으나 사마리아인들은 요구를 거절했고 박대했다. 제자들은 분노했고, 공격적이었고, 예수님에게 그런 사마리아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 태워버리도록 해 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후에 도리어 대결을 피하고 돌아서 지나가고 오히려 미래의 선교지로 남겨 놓으셨다.

북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북쪽 앗시리아에 멸망당하고 그 제국의 문화와 이방 종교가 혼합되어 버리고 말았다. 지금 북한은 1945년 무신론 공산화된 이후에 67년 동안 무신론의 정치와 김씨 3대 세습과 가문과 우상화에 흡수되어 버렸다. 남왕국은 주전 587년에 동방의

바벨론 제국에 정복당하고 우상숭배와 문화와 정치에 합병되어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 남북 이스라엘을 전도하며 구원하는 사역을 행하셨다. 이스라엘은 1,000년 가까이 이런 미움과 화해하지 못하고 적개심을 가진 관계로 살아갔다. 바벨론 제국의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로 갔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결국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을 포기하였다(BC 135-104) 훗날 유대지도자 힐카느스는 북이스라엘의 세겜성, 그리심 공격시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죽였다. 이런 이유로 두 나라는 더욱 관계가 악화되고 미움이 더해갔다. 결국 예수님 시대에 와서야 사랑과 회복과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북방 선교를 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는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5장 44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팁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5장 45절에서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한국 전쟁사를 통하여 기독교는 공산당에 팁박당하고 살해당했던 역사를 안고 있다. 복수신앙을 넘어 복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치유하며 회개시킴으로 서로 회해해야 한다. 예수님처럼 시간이 길게 걸리더라도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며 전도를 허락하시는 날까지 기다려야 한

다.

(3) 누가복음 10:30~37절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교훈삼아 선교해야 한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비유를 통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는 공산주의 무신론 공산주의에 속아서 강도 당한 자처럼 되어 버린 북한 주민들과 무신론 동조 세력들을 기도를 통한 성령의 불과 사랑의 실천으로 녹여야 한다. 단순히 북한을 동조하고 돋는 것이 아니라 김씨 3대 세습과 권력에 속임 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교해야 한다.

(4) 요한복음 10: 10~16절에 “우리 안의 양”과 “우리 밖에 양”에 대한 비전을 품고 선교해야 한다. 우리 안의 양은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밖에 양은 북한과 중국과 구 소련 지역내에 있는 고려인들과 조선족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라 하겠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1회(10:15), 누가복음에 3회(9:52, 10:33, 17:16), 요한복음에 9번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언급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선교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비전으로 제시하셨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고,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남한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했던 역사를 지닌 북방의 한국인들에게도 복음 전파가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도 우리도 북방의 한민족을 찾아내며, 그들을 선교하면서 사도바울처럼 동시에 현지인 종족과 민족들을 동시에 선교하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기도제목이 되고, 선교 실천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3. 북방 선교의 현미경적 분석과 전략

1) 북한 선교

북한 선교의 장애물: 1945년 분단과 1950년의 전쟁으로 생겨난 남북한의 적대감은 한국민의 통일과 선교에 최대의 난관을 만들었다. 그것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무신론과 유신론 그리고 경제의 균등과 경제적 차이를 형성하는 사상과 철학의 전혀 다른 상황을 형성했다. 북한에서도 미인계를 쓰고, 공안을 동원하고, 정보를 얻어내 선교사를 살해하고, 달러나 원조를 받아내고 놀라 없으면 내 보내는 전략을 씀으로 선교사들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북한 선교의 또 다른 장애물은 북한 공안이다. 체제가 다른 사상으로 세뇌된 정부조직이다. 그러므로 이 정부조직은 러시아처럼 상부가 생각이 바뀌면 하부가 녹아지므로 러시아 고르바초프 시절처럼 고위층 정부 관료의 만남으로 녹여야 한다.

북한 선교 전략:

첫째, 인내와 인재를 준비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와 동일한 핏줄이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족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분단되어 자유롭게 오고 가지고 못하는 관계를 형성

하고 있다. 이산가족들 조차도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상황이다. '노아때 물이 언제 빠질 것인가?'라고 기다렸듯이,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가능한 루트를 통하여 선교를 진행해야 하며, 또한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이 북한에 문을 여실 때에 잘 준비되고 훈련된 제자들로 하여금 대대적인 추수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북한 선교를 위한 진정한 제자들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할 때다.

둘째, 재미, 재중국, 한국 사역자들이 정권자들을 상대해야 한다.

지금으로써는 한국에서의 파송되거나 전파를 통한 선교와 미국 시민권자들을 통한 선교와 탈북자들을 활용하고, 북한내 신자들을 돋는 것이 북한 선교의 중요한 핵심 사항이며. NGO(비정부 구제를 포함한 선교단체)를 통해 선교하고, 생명을 걸고 사역할 수 있는 연단 받은 선교사들을 통해 사랑과 전략을 가지고 선교해야 한다. 새로 조직을 장악한 김정은은 인민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의 문을 열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런 틈새를 파고들어 선교를 해야 한다.

실례로 몽골이 1991년 오치르바트 대통령이 혁명과 시장경제 체제를 인정하면서 급격히 틈새가 벌어져 그 사이로 선교사들이 파고들어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성경 찬송을 번역하고 새벽기도, 금식기도를 행하며 현지인 제자들을 양육하여 20년 만에 신속하게 3~4%를 복음화시켰듯이 선교사들을 북한인 양육에 속 전속결을 해야 한다.

셋째, 기도와 금식기도로 성령이 녹여야 한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바울의 유럽 선교에서 보듯이 선교의 문은 성령님이 여시기 때문이다(행 16:10-15).

2) 러시아 선교와 선교 전략

첫째, 선교의 틈새를 찾아 내어 집중 선교하라
러시아내 고려인 선교는 첫째,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그룹과 둘째,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선교와 셋째, 회교도들 지역인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지역에 선교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지역도 지난 20여 년 동안 적극적인 개혁정책, 경제 개방으로 인해 이슬람 국가와 전통 정교회 지역과 무신론 지역에도 선교의 기회가 주어졌다.

선교사 적극적으로 진행되면서, 위기를 느낀 정부와 기존 세력인 정교회측은 서로가 연합하여 선교사들의 비자 기간을 제한하고, 오래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추방해 오고 있다. 언어가 덜 준비되고 경험이 부족한 선교사들이 상당수남아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물가가 올라 선교사들이 선교비가 부족하여 남아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가만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있으면 선교의 틈새가 보이게 되어 있다.

둘째, 무신론과 피폐된 영혼을 가진 목마른 자들을 구원해야 한다.

정교회의 고착화 노령화로 종교에 싫증난 사람들을 찾아 복음을 정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음주가 심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성 개념이 없

다. 그래서 피폐되어 가고 인생의 목적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에 충만하여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인도해주면 얼마든지 선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인에게는 어려운 언어가 문제가 된다. 언어가 부족하면 통역을 써서라도 러시아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셋째, 바울처럼 러시아 선교를 위한 목숨건 디아스포라들을 찾아내어 동역하라.

실례로, 카자흐스탄에서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혁의지가 있을 때가 선교의 진보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 그리고 그동안 십만명의 고려인들이 정치 학계 문화 예술분야까지 두각을 나타내며 뿌리를 내렸는데, 그들을 전도 양육하여 현지인들에게 선교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문화와 언어와 현지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러시아, 영어, 한국어 자유롭게 구사하고 근면 성실하다. 이런 인재들이 바로 선교의 동역자와 주체자들로 목숨 걸고 나설 때 선교가 진보한다.

넷째, 신학교 사역을 통한 현지인 복음 동역자들을 길러 파송하라.

모스크바 선교는 소수의 고려인 전도가 1차적으로 끝났다. 이제는 그들과 그들 자손을 훈련시켜 현지인들에게 전도하는 2차적 시대가 되었다. 특히 신학교에 투자하여 실력 있는 제자들을 통해 선교해야 하지, 선교사가 일선에 나서는 시대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서 지났다. 선교사는 현지인 신학교에 들어가서 협력하며 현지인 밑에서 교계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훈련이 필요하다. 한국인 선교사가 러시아 현지

인 지도자들을 양육 가능한 자들은 많지 않다. 언어 구사가 자유로운 자는 직접 사역하되, 그렇지 못한 선교사들은 차라리 사랑과 기도와 장학금으로 현지인들 교육을 돋는 것이 선교에 더 빠르고 효과적이다.

다섯째, 다양한 종교, 언어, 드넓은 나라에서 짧고 집중적으로 사역하라.

1억 5천만에 대 인구와 17개 나라, 120개 이상의 종족을 가진 거대한 나라 러시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한 종족으로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30만에서 300만명 미만으로 짧아 소수 종족을 집중적으로 선교하라. 넓고 많은 사역보다 작은 종족에 집중하여 사역하는 것이 몽골 선교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러시아 선교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임을 확신한다.

여섯째, 러시아 정교회속에서 강력한 기도운동과 말씀운동으로 승부를 걸라.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성경 강해와 성령의 능력을 의존해서 성공적인 선교를 행했으며 영적으로 승리했다. 1,000년의 러시아 기독교인 정교회의 역사가 있으므로, 러시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기독교가 카톨릭에 가까운 외형과 문화적으로 형성되었지, 성경을 잘 모르므로 언어와 문화를 익힌 뒤에 성경을 잘 풀어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줄만한 능력이 있는 선교사와 현지인 지도자들이 있으면 러시아 선교가 어렵지만 않고 상상외로 쉬워질 수도 있다.

일곱째, 선교사와 러시아 원주민이 끈끈한 팀 사역을 행하라.

8년 이상 된 선교사들은 고려인 선교에서 과감하게 러시아 원주민 선교로 넘어가며 선교가 전환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후에 신실한 현지인 선교 파트너를 선발하고 투자하고 양육하여 선교사와 현지인 팀사역 전환 체제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더 놀라운 선교 역사와 더 많은 선교의 추수를 볼 것이다.

여덟째, 러시아의 선교사들은 1~2년에 한번씩은 반드시 러시아에서 나와 휴식과 재충전과 새로운 전략을 점검하라.

선교지에 오래 머문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 나와 재충전하고 신선한 생각과 전략과 영적 기도가 선교를 확장한다. 나는 그런 잘못을 몽골에서 여러 번 저질렀다. 그 결과 탈진과 무기력으로 나날을 보내던 경험을 하고 있다. 들어가서는 사력을 다하고, 나와서는 쉬고 점검받고 재충전하여야 한다. 그 틈새를 현지인들에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선교사 혼자 열심을 다하면, 나중엔 현지인들이 자립심이 없어지고 주인의식이 결여된다. 이때 후방의 한국과 미국 교회는 선교사 재충전과 휴식처를 제공하고 적극 돕도록 한다.

3) 중국에서의 선교전략

그동안 한국에서 들어간 선교사들과 미국에서 들어간 대부분의 한인 선교사들은 중국 선교를 다음과 같이 행해 왔다. 첫째, 선교의 인재

들(선교사들)을 투입했고 둘째, 재정을 보내 신학교를 돋고 셋째, 제자들을 양육하고 넷째, 교회당을 지어주고 다섯째, 탈북자들을 돋고 성경을 가르치고 여섯째, 병원과 대학교를 세워 교육과 치료 사역을 해 왔고, 일곱 번째, 선교 방송 사역을 행해 왔고 여덟 번째, 성경을 반입하거나 주석 책을 공급해 왔다. 일부 선교사들은 조선족 사역이나 탈북자 사역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고 그들을 선교하는 사역에 집중해 왔다.

앞으로 중국 선교는 1) 미종족 선교에 적극 후원해야한다. 2) 동북 삼성보다는 서북부와 중남부 지역에 더욱 집중하여 중국내 소수민족들에게 선교하는데 현지인들과 연합해야 한다. 3) 중국내 대학에 입학하여 중국말이나 소수 민족의 언어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유창하게 구사하며 그 민족 속에 살며 그들의 가까운 친구로써 선교해야 한다. 이런 선교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소망이 있다. 4) 소수민족의 짧고 유능한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을 교육하며 미래의 지도자 후보생들을 발굴하여 가르치고 자립시켜야 한다. 30년 후에는 그들이 중국의 주인이 되며, 중국을 이끌 지도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5) 장학금 투자. 대학과 신학교에 인재에 투자, 방송 선교와 문서 선교하는 일에 투자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6) 일부 지도자들은 중국 가까운 몽골, 싱가폴, 한국, 필리핀, 미국, 홍콩 등지로 끄집어 내어 훈련하고 세계 선교 현황과 비전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인 인도나 중동을 여행하며 추수 해야할 민족들을 보여 주어야 한다.

실례로 우리 부부는 1995년 몽골인 6명을 데리고 중국내 내몽골에 가서 선교할 자기 민족을 보여 준 이후 몽골인들은 중국에 많이 찾아가 몽골인들에 의한 중국내 몽골 선교에 비전을 제시하였다. 2012년에는 유럽을 데리고 가서 그곳의 자기 민족을 보여주자 선교에 대한 혜안이 생겨나고 있다.

7) 젊은 제자들을 중국내 다른 종족들로 단기 선교를 가도록 권면하고 훈련시켜 주고 지원해야 한다. 또 다른 종족에게 찾아가 보면 중국내 현지인들의 선교의식이 확 달라진다. 실례로 몽골인 500명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이제는 몽골 국내와 국외 외국 지역에까지 선교하는 선교의 주역이 되었다.

결론: 지금까지 북한선교, 중국내 조선족 선교와 중국 현지인 선교, 러시아내 고려인들과 다수의 원주민 선교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을 선교할 때마다 각각의 다른 형태의 장애물들이 있다. 이런 장애물들은 그 나라와 그 민족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돋는 자를 찾으면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바울은 빌립보에는 루디아를, 데살로니가에서는 나손 등등을 준비하셨듯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철저한 순종이다. 전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의 역할과 후방에 있는 후방 선교 후원자들의 역할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선교는 진척된다.

기도 제목

1. 중국내 조선족, 중국 원주민들이 중국내 미전도 종족 선교에 주역이 되도록
2. 중국내 탈북자들의 예수 영접과 양육과 그들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을 위해
3. 러시아 연해주에서 선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영적 승리를 위해
4. 북한에 들어가 사역하는 일꾼들과 지하 교회의 인내와 성장을 위해
5. 김정은과 러시아 대통령들과 중국의 주석과 정치인들이 과감한 개혁속에 선교의 틈새가 생기도록, 선교사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도록
6. 카자스탄과 키르키즈스탄의 회교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7. 중국과 북한에 세워진 선교 병원들과 기독교 대학들을 위하여
8. 러시아, 중국에 세워진 신학교들을 위하여
9. 성경 배달원들과 개인전도와 양육에 참가한 북방의 수 천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10. 선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11. 두려움과 비자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도록
12. 개인 경건시(기도와 말씀 묵상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13. 북방 선교의 재생산의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14. 선교가 진척된 지역에서는 선교사들이 주도권을 현지인에게 잘 이양하도록

北方宣敎 II.

북방선교와 한민족

김우섭 목사
러시아 로스톱 나다누 선교사



최근 인터넷 뉴스를 통해 러시아가 구소련 시대 때 북한에 제공했던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총 11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 중 90%를 변제해 주고, 나머지 10%는 양국 합작 프로젝트에 재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채무변제를 통해 북한을 경유해 가스관을 한국까지 연결시키고, 극동 지역의 잉여 전기를 한국에 판매하며, 또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북한을 경유하여 한국까지 연결되기를 바라는 목적이라고 기록했다.

러시아는 미래의 경제 프로젝트를 대비해 북한의 동의를 얻고자 원원하는 수를 둔 것이다. 만약 러시아의 한반도를 향한 경제 프로젝트가 이루어 진다면 한국은 물론 북한까지 한반

도 전체가 러시아에 더욱 가까워 지게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북방선교에 직간접적으로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러시아는 근대를 맞이하며 한민족의 역사에 깊숙이 관여하여왔다. 때로는 한민족의 방패막으로 한때는 분열의 조장자가 되기도 했다. 일제 식민통치 때는 러시아 극동지역이 우리 민족의 피난처가 되었는데, 그 한민족의 후예들이 고려인이라는 호칭 하에 지금까지도 러시아와 구소련국가들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다. 얹히고 설kin 이런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함께 북방나라 러시아는 오늘날까지 한민족과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필자는 러시아 선교사로서 북방민족 선교는 우리 한



민족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필연적 사명이라고 느낀다. 이에 대한 북방선교의 몇 가지 선교적 당위성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과거의 역사적 관계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진 러시아와 한민족과의 관계는 유럽지역이나 기타지역과는 다르게 민족적 이질감이 제거되어 선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질감은 배타심을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다는 것은 선교대상자들에게 접근하는데 큰 이점으로 작용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실은 필자는 러시아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한 자들과 잘못 이해하

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더러 있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을 마치 가난한 한 농촌 국가쯤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연령층이 어릴수록 더했다. 그에 비해 일본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이들의 이런 무지함에도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한 민족이 러시아인들에게 접근하기 더 쉽다는 것이다. 이유는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룬 나라라는 점이다. 이런 연유로 일본은 러시아에 있어서 경쟁과 경계의 대상이며, 또 이러한 점은 일본인들이 러시아 깊숙이 들어 가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 민족은 일본처럼 러시아에 위협적 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면은 한민족이 러시아선교에

용이한 점이다.



둘째로, 러시아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은 북방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정상 정복을 꿈꾸는 산악인들에게 중간 베이스구축은 필수적이다. 베이스 구축 없는 정상 정복은 있을 수 없다. 선교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선교사는 고국을 떠나 선교라는 정상정복을 위해 길을 나선 자다. 중간 베이스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고려인들은 북방선교에 있어서 베이스구축을 위한 선교적 뜻이 있다고 본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고려인들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짐을 나눠지며 동역해 나가고 있는가! 그들은 선교사들이 구 소련지역으로 들어 오기 전 형성되어 있던 높고 낮은 계곡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러시아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다. 다민족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민족성향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카프카즈지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다케스탄등)에서 이주해온 이들

의 민족 성향을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 염치 없고, 자존심이 강하며, 돈 버는 일에는 지나치리 만큼 적극적인 DNA를 소유한자들이고, 그들과 좋은 관계로 이웃해 살려면 단점을 말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항상 '좋다' '잘한다'는 칭찬으로 일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고려인들에 대해서는 근면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러시아에 도움이 되는 민족으로 호평한다. 또한 온화한 민족성으로 러시아내에서 친화력있는 민족으로 인정받고 있다. 물론 러시아 현지 교회에서도 현지 목회자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그들의 헌신된 봉사 자세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고려인은 북방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선한 선물과 같은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민족을 북방지역 선교를 위해 당신의 선한 섭리 가운데서 준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한국 교회는 선교지 러시아에 좋은 실천적 모범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개신교역사는 공산혁명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 가지만 공산주의 70년 세월은 이전 개신교회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지워버렸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 개신교역사는 실재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20년 정도로 보면 된다. 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러시아교회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봇물 터지듯이 갑자기 열린 북방지역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또 내부적으로 현지 교회들도 전도를 통해 교회들을 세워나갔다. 그렇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정규적인 신학교가 없어 목회자들이 신학 훈련을 받지 못

해 생겨난 문제점들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민족 선교사들이 러시아에서 계속하여 사역을 감당해야 할 당위성을 찾게 된다. 한국은 이미 100년이 넘는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정규신학교에서 신학과 경건의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이 교회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으며, 또 교회 사역에서도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러시아 개신교회는 아직 교리집 조차도 없어 이들을 신학적으로 바르게 세워주는 일이 절실하다. 목회자들은 스스로 영적 깊이를 더해가지 못한 채 사역에만 매달리므로 영적 피곤함의 수치가 높은 편이며, 목회적 경험의 부족과 또 좋은 목사의 모범이 없어 목회에 도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경적인 예배 모범의 틀이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현대적 예배형태들이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이런 러시아 개신교회의 부족한 면을 한국의 풍부하고 헌신적 교회의 모습을 통해 좋은 모범과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러시아 남부 로스톱 나도누라는 주도

(州都)에서 신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제 4회째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이다. 신학생들 구성은 목사, 목사 후보생들, 그리고 교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들 중 정규적 신학과정을 마친 자는 아무도 없다. 이들은 4년여 동안 한국의 교수님들과 선교사들로부터 강의를 받고 졸업을 한다. 해가 더해 갈수록 신학에 심취해 가며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또 사역에 자신감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로서 무한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졸업생들은 자비로 한국을 방문하여 졸업장을 받는데, 한국에서의 약 10일 기간 동안 한국 교회를 직접 눈으로 보며, 마음으로 느끼며 실천신학을 배운다. 새벽기도회, 주일학교예배, 한국 교회의 예배의 모습, 성도들의 헌신 등을 보면서 많은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는다. 러시아교회에서는 아직은 보기 어려운 모습들이다.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면 러시아교회들도 한국교회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며, 목사님들은 받은 도전이 본국에서 사역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교회가 러시아 개신교회에 보여줄 것이 이것뿐이겠는가! 성경공부 교재로부터 교회의 프로그램등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한국교회가 러시아 교회에 줄 수 있는 것이다. 얼마전 로스톱에서 가장 큰 초대형마트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이 대형마트는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자본으로 세워진 다국적기업이다. 그 곳에는 가구와, 식료품, 건축자재, 음식점, 갖가지의류, 전자기기 등을 판매하는 드넓은 매장들이 줄지어있다. 그중 눈에 띄는 대형 핸드폰 매장이 있는데, 노키아 제품을 파는 매장이다.

이 매장은 로스톱 뿐만 아니라 러시아전체, 나아가서는 유럽까지 노키아의 위상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매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그곳에 갔더니 노키아 간판이 사라지고 삼성 핸드폰 매장이 들어선다는 광고와 함께 새롭게 단장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현재 러시아 전체의 노키아 대형매장이 삼성으로 교체되고 있다. 그곳에 갈 때면 스스로 고무되어 자꾸 눈이 그 쪽으로 쏠리는 것은 단지 높아진 삼성의 위상 때문만은 아니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북방 선교를 위하여 우리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북방선교를 위해 한민족을 준비하셨고, 현재까지 진행시켜 가고 계시며, 또 계속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다.

北方宣敎 III.

공산권 선교

김영제 목사

선교 중앙교회

전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현 디아스포라 신학교 교장



들어가는 말

한 때 지구의 반을 차지했던 공산국가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중화민국을 비롯한 많은 공산국가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자처하던 소련이 15국가로 해체되면서 공산주의가 와해되고 동유럽의 공산국가들도 레닌의 동상을 허물어뜨렸다. 그러나 아직도 옛 공산국가들이 여전히 공산주의 법과 생활양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공산주의 국가 뿐 아니라 옛 공산국가 선교를 함께 포함하여 공산권 선교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간과 지면 여건상 공산주의의 역사나 모든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룰 수 없어 주로 필자가 겪었던 공산권 선교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

다. 참고로 필자는 구 소련(현재는 CIS-독립국연합)우즈벡 선교사로 9년 동안 사역하였으며 또 구 소련권의 여러 나라와 중국과 동남아 공산국가들을 다니며 단기 선교사역을 하고 있다. 지금은 한국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와 함께 공산권 외국인들에게 신학교육을 시켜서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다. 즉 한국에 살지만 지금도 날마다 구 소련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중문화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볼 때 20년 가까이 공산권 선교를 하고 있는 셈인데 그 경험과 지식을 일부 정리하여 본다.

1. 공산권과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

공산권(共產圈;the Communist bloc)은 공산

국가 및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여러 나라의 권역 또는 범위를 말한다. 공산권 선교는 공산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또 현재는 공산국가가 아니지만 과거에 공산국가였던 곳에 선교하는 것도 공산권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구 소련을 비롯한 옛 공산국들에는 아직도 공산주의적인 정치와 문화와 제도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산권을 이해하려면 공산주의에 대해 조금 이해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레닌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1917년 11월 7일의 혁명으로 러시아 로마노프왕조를 무너뜨리고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탄생시켰다. 혁명정권은 1918년부터 1922년까지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외국과 전쟁을 치르며 한편으로는 국내 적대세력의 내란을 진압하고 1922년 12월 소비에트 연방을 결성하였다. 그 뒤 새 공화국의 가입으로 15개의 공화국이 공산당 일당독재에 의한 강력한 중앙집권의 연방을 이루었다. 연방 구성 공화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시·우즈베크·카자흐·아제르바이잔·몰다비아·키르키스·타지크·아르메니아·투르크멘·그루지야·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로 15개 공화국이다. 정식 명칭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USSR)**'이고 줄여서 소련이라고 부른다. 소연방에 혼재한 많은 소수민족에게는 공화국 안에서 자치가 허락되었는데, 연방에는 20개의 자치공화국, 8개의 자치주, 10개의 민족관구가 있었다. 러시아인·우즈베크인·타타르인 등 약 130개 민족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이

유럽계 민족이며, 아시아계 민족도 소수 포함되었다. 각 민족은 민족어와 공용어인 러시아어를 사용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소련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나, 대전이 끝난 뒤 동유럽과 아시아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생겨남에 따라 소련은 그 지도국이 되었다.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이른바 폐레스트로이카(개혁) 및 그라스트노스트(개방)를 기초로 한 일련의 개혁정책의 여파로 자유화 물결이 일어 1989년 동·서독이 통일되는 등 공산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를 지향하게 되면서 보다 급진적인 개혁의 소리가 높아갔다. 1991년 보수파의 쿠데타가 발생, 이를 무력화 시킨 엘친이 보다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고, 1991년 공산주의 포기와 공산당 해체를 계기로 각 공화국이 독립을 강행함으로써 급속히 붕괴되었다.

연방 해체 후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을 제외한 12개 독립공화국이 1992년 1월 1일을 기해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CIS)을 형성함으로써 소련은 정식으로 해체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소련과 러시아를 혼동하는데 러시아는 소련(연방국가)에 소속된 나라 중 하나로서 소련을 주도한 중심 국가였을 뿐이다. 한편, 러시아와 더불어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나라 중국이 있다. 러시아는 당시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국가로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공산혁명을 일으킨 반면 중국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었고 공산당과 국민당이 있었다. 국민당은 자본주의였고, 공산당은 공산주의였는데 같이 손잡고 일본과 싸운 적도 있다. 결론

적으로는 공산당이 국민당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중화 인민 공화국을 세우게 되었다. 두 나라가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다른 점은 러시아는 공장 등에서의 노동자 중심이었고 중국은 농민 중심이었다. 중국은 오늘날 덩샤오핑의 영향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해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공산주의에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혼합하고 있는 양상이다.

또 한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짧은 지면에 이를 다 설명 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주의는 유럽사회에서 옛날부터 내려 온 사상이다. 레닌 당시는 부익부 빙익빈이 너무 극심하여 가난한 노동자들의 세력을 등에 없고 레닌이 사회주의를 강화하고 정치화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근본 의도와는 다르게 무력으로 자본가들을 숙청하며 잘못되고 악한 공산 독재국가를 탄생시킨 것이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인하고 생산 수단을 공유한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정치에 가깝고 사회주의는 경제정책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다.

2. 공산권 선교의 시작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무시무시한 괴물 같고 철옹성 같은 소련 공산주의가 급작스럽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였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이라 부르며 박해하였기에 러시아 정교회 등이 약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 모든 종교는 심하게 핍박을 받고 청소되든

지 지하로 숨어들었다. 그런데 1991년을 기점으로 공산정권이 무너지자 세계 각처에서 선교사들이 공산권을 향하여 몰려들었다. 실상은 고르바초프 시절부터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므로 먼저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도 4월(고르바초프 집권 당시)에 소련선교회와 예장고려 교단을 중심으로 한 8명의 선교사(그 중 6명이 목사, 4명이 예장 고려교단 목사)가 파송 되었다. 당시는 그것이 큰 이슈가 되어 저녁 9시 TV 뉴스에 방영되기도 하였다. 그 후로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공산권 국가들을 향하여 쏟아져 들어갔다. 또 중국도 미국과의 평통외교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일부 허용하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서구권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다가 1992년도에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선교사들도 여러 경로로 중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봉골과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공산권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음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가 활동하게 되었다.

3. 공산권 선교의 흐름

구 소련과 중국 지역에서의 초기 선교는 대부분 동포들을 중심으로 행하여졌다. 구 소련에서는 우리 동포를 까레이스키(고려인)이라 부르고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 부른다. 소련에 살았던 고려인 동포는 스탈린 체제에서 더 혹독한 삶을 살았기에 우리 말과 문화를 많이

상실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허용하여 대부분 우리 말과 문화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필자가 공산국가였던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간 것은 1994년도였다. 당시의 거리 풍경은 가끔 TV나 영상을 등을 통해 보았던 북한과 흡사하였다. 한마디로 살벌하고 무서운 분위기였다. 자기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기 어려웠으며 레기스트라치라고 불리는 주거 등록과 비자문제 등이 선교사를 심하게 괴롭혔다.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통제와 억압과 독재체제인 공산권에서 사는 것은 무척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다. 당시는 길거리에서 사진만 찍어도 카메라를 빼앗고 필름을 찢어 버린 시기였기에 필자는 지금도 우즈벡 거리 풍경에 대한 사진이 하나도 없다.

소련이 해체된 후, 초창기에는 구 소련권의 국가들은 어느 정도의 선교 자유가 일시적으로 주어졌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같은 동족이 있다는 이유와 구 소련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투자관계 등으로 문이 열리고 있었기에 비교적 한국인 선교사들은 동족 선교에 있어서는 자유로웠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예배당도 많이 세워졌다. 특히 고려인들이 많고 비교적 물가와 인건비가 저렴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런 선교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사도행전의 초창기 선교가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으로 넓혀져 간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 동족을 중심으로 모이던 교회에 점차 타 민족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와 동시에 국가의 핍박은 날로 심하여졌다. 그 선봉에선 국가가

우즈베키스탄인데 1997년부터 종교비자를 허용하지 않았다. 공산주의 법에는 교회가 국가에 등록되어야 집회가 가능한데 교회 등록도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졌다. 2000년도 이후에는 새롭게 등록해주는 교회가 거의 없어졌다. 그리고 한 사람씩 추방당하는 선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1년 미국의 9.11 테러로 말미암아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외국인들 특히 선교사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하였는데 필자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는 점차 주변 국가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소련에서 독립된 중앙아시아 5개국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크스탄이다. 그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오픈도어가 발표한 종교 박해국 가운데 해마다 10위 안에 링크되고 있으며 박해의 강도는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이제 대부분의 선교사가 추방당하고 필자와 함께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 가운데는 단 한 사람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는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주어 투르크멘과 타지흐스탄은 선교하기가 매우 힘들고 비교적 자유롭던 키르기즈와 카자흐스탄도 갈수록 핍박이 심하여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도 정교회의 영향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사들을 괴롭히고 있다. 근래에는 외국인들의 비자법을 강화하면서 3개월 밖에 비자를 주지 않으므로 선교사들이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의 공산권 국가들은 캄보디아처럼 매우 자유로운 국가도 있고

대체로 점차 선교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90년대 초기에 문이 열려 이제 선교 역사 20년이 된 구 소련 지역과 중국, 몽골 등은 선교사들에게서 현지인 사역자에게로 사역이 이양되고 점차 현지인 교회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공산권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신처럼 신봉하다가 실망하고 상처를 겪었다. 그리고 그동안 종교 팝박으로 종교 없는 사람이 많고 종교에 대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그리움이 있다. 또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상과 문화에 대한 갈급함도 선교의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산주의에 대한 실망과 경제적 궁핍이 그들을 가난한 마음으로 만들어 복음을 받기에 좋게 하였다.

공산권은 우리 시대의 가장 풍성한 선교 어장이 되고 있다. 구 소련권과 몽골,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공산권 국가들은 우리 시대에 가장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난 국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구 소련 국가들은 선교 대상국에서 점차 선교하는 국가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4. 공산권 선교와 동포들

구 소련의 고려인들을 말하지 않고는 구 소련 공산권 선교를 논하기 어렵다. 초기 중국 선교도 조선족 동포를 빼놓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즈벡은 소련 국가 중에서 우리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이다. 구 소련 고려인 동포들은 원래는 두만강 건너 극동지역(블라디보스

톡 주변)에 살고 있었다. 한 때는 그 지역이 독립운동의 본거지가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레닌의 뒤를 이은 독재자 스탈린이 소수민족 강제 이주정책을 펴면서 1937년도 가을에 중앙아시아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지로 이주되었다. 사실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사막과 갈대밭에 버려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런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반 가까운 동포들이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집단농장(콜호즈)에 거주 하였으며 1953년 스탈린이 대략 40만 정도의 고려인이 구 소련권에 살고 있는데 그중 반 이상이 우즈벡에 살았고 지금도 각 지역으로 흩어진 동포들의 고향을 물으면 대부분이 우즈벡 출신인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우즈벡은 우즈벡어를 공용어로 지정하고 모든 문서와 관공서 등에서 우즈벡어를 쓰도록 강요했기에 우즈벡어를 모르던 우리 고려인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 실직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인과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선교사들의 교회는 초창기에는 대부분 고려인 동포들이 물밀듯 모여들었다. 신앙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동족이 그립고, 한국 말과 문화가 그리워서 모였다. 무시당하고 멸시 받으며 살다가 조국이 그렇게 잘 산다니 반갑고 자랑스러웠다. 늘 소수민족이라고 하층민처럼 무시당하던 그들에게 우리 동포들이 주동이 되어 모이는 공동체가 있음이 행복이었다. 그리고 선교사를 통하여 듣는 조국의 소식과 간간이 맛보는 조국의 문화와 음식들이 그들을 불러들였다.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지 않은 이들은 점차 떨어져 나가고 그 빈자리를 타 민족들이 채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갈수록 이제 고려인 보다 타 민족의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고려인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일반교회가 되어 가고 있는 교회가 많다.

구 소련의 고려인, 그들의 애환과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들은 한국으로 올 수도 없고, 중국의 조선족 동포와 다르게 한국어를 모르므로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한국인도 아니요, 우즈벡인도 아니요, 러시아인도 아닌 제3의 종족이 되어 서러운 한을 품고 다시 구 소련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즈벡 출신의 고려인들이 어려움이 많다. 필자는 2001년 말에 우즈벡에서 추방당하였다. 그 후로 구 소련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사역하는 경우가 많다. 극동 연해주 지역도 자주 간다. 연해주 지역에는 어렸을 때의 고향을 찾은 노인들과 조상들의 땅을 찾아 이주해 온 고려인 동포들이 많다. 그들 중 대부분이 우즈벡 출신인 것을 확인하고는 반갑고도 마음이 아팠다. 고려인 동포들 오늘도 그들의 삶은 녹녹치 않다. 그러나 선교적으로는 그들은 구 소련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고 예비하신 이 시대의 요셉이었다. 그들이 있어 선교사들의 통역자가 되어 주고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기에 구 소련 공산권 선교의 가장 큰 열매와 성과를 한국 선교사들이 거둘 수 있었다. 어찌 보면 지금도 그들은 디아스포라 선교사가 되어 구 소련 전 지역을 복음으로 불 지르기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지 모른다.

또한 중국 선교도 구 소련권 선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조선족 동포들이 있어 통역과 여러 면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중국 지하 신학교로 강의하러 갈 때가 많다. 한족들만 모이는 학교에도 여전히 통역자는 고려인 동포인 것을 볼 수 있다. 또 고려인 동포들 중에 믿는 자와 헌신된 사역자가 많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에 우리 동족을 사방에 흩으셨다. 오늘날 우리를 온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대국으로 쓰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4. 공산권의 타 민족 선교

구 소련 지역에는 130여 종족이 살고 있다. 중국도 국가에서는 56개 소수민족으로 둉령 거렸지만 실상은 400여 소수민족이 있다고 한다. 구 소련과 중국이라는 대국이 그들을 단일 언어와 법으로 통제해 놓음으로 선교에 있어서는 편리한 면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족에게는 종족의 언어와 문화와 음식 등이 있다. 단일 민족으로 단일 언어를 사용하던 한국 선교사들에게는 이런 것이 이색적인 풍경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많은 종족들이 이제 점차 자기 언어와 문화를 찾아가고 있다. 이는 좋은 현상이면서도 선교의 또 하나의 벽이 되기도 한다.

필자가 살던 우즈베키스탄에도 80여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일반적으로는 러시아어를 사용하였지만 대부분 자기 민족끼리는 민족 언어를 사용하였다. 각 가정에 가면 그들이 먹는 음식과 문화도 민족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 구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이 자기 민족의 고유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에 한 가지 언어도 배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 세 가지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어려움이 된다. 그래서 구 소련권에는 처음부터 선교 대상 민족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언어를 습득하며 그들과 교제하며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우즈법인을 대상으로 들어오는 선교사들은 우즈벡어를 배우고 우즈벡 문화를 습득하며 우즈법인과 가까이 하며 살고 고려인과 러시아인 등,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어를 습득하며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살게 된다.

동포들을 통한 타민족 선교와 또 타민족을 대상으로 한 직접선교가 합력하여 이제는 타민족에게서 많은 열매가 맺히고 있다. 특히 이슬람 민족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다.

또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구 소련권에서 들어간 유대인이 이스라엘 인구의 반 가까이가 된다는 사실이다. 그들 중에는 소련 지역에서 이미 복음을 받고 들어간 이들이 많다. 그들은 러시아어에 능통하고 전통 유대인 보다 복음에 열려있어 이스라엘 선교에 귀한 도구가 되고 있다.

5. 민족 종교의 부흥과 이슬람 회귀 운동

공산권 선교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들의 옛 종교를 찾아

회귀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정교회가 다시 일어나면서 선교사들과 개신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 우즈벡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이슬람국가들은 하루가 다르게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6. 마지막 땅 끝, 북한선교

공산권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북한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린다. 필자는 우즈벡 선교사 시절에 북한 탈북자를 3년간 숨겨준 경험이 있다. 나중에는 그 일이 발각되어 그는 북으로 끌려가고 필자는 추방당하였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궁핍한 나라이다.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는 아프리카 어린이들보다 더 열악하다. 올해는 북한의 곡창지대라고 생각되는 황해도 지역에서도 아사자가 나오고 있다.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은 너무 먹어 배가 터질 지경이고 국민은 굶어 죽어 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오픈도어가 제공하는 종교핍박 순위에서 해마다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가장 가깝고도 먼 우리 시대의 땅 끝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는지, 사랑과 힘과 지혜를 모아 강도 만난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야 한다. 남한에서 버리는 음식물만 가져도 북한 동포들을 먹일 수 있다고 한다. 단돈 일만 원만 가져도 북한 어린이의 한명의 생명을 한 달 동안 책임질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북한을 위한 금식기도 릴레이를 하고 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한끼 이상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 현금을 모아 북한 선교를 하고 있다.

나가는 말

공산권 선교는 우리 시대의 가장 좋은 어장이다. **공산권 선교에서 가장 큰 열매를 거둔 교회는 한국 교회라는 사실도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이는 세계 선교의 총재이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획하고 이끄신 일이다. 우리민족을 공산권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이제 공산권 선교를 통하여 이슬람권과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시대의 땅 끝인 북한의 선교 문이 열리고 있지 않음은 우리의 아픔이요 눈물이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깨어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아닐까? 필자는 북한 지하교회의 순교적 신앙인들과 죽음의 고초를 겪은 탈북자 형제들 가운데서 순교적 신앙을 가진 선교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다 알지 못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위대한 하나님나라 죄인 구원운동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北方宣教 IV.

북방선교와 북한선교

강다니엘선교사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전 C국 선교사



7월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저 또한 선교지에 있을 때 7월은 숨쉴 틈 없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와 단체의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지로 와서 사역을 하는 일정들이 많아 함께 그 일들을 감당 해야 하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바쁜 시기입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북방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러시아와 몽골 중국 그리고 북한에 대한 관심은 복음의 서진을 통한 땅끝 선교로의 관심이 아닌가 합니다. 올 여름에도 많은 분들이 그곳으로 발길을 옮길 것입니다.

지난 한국의 역사 속의 7월은 1972년 7.4남북 공동 성명과 1988년 7.7선언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 했습니다. 2000년 7월 29일에는 제1

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요즘 북한에 대한 관심은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의 후계 체제에 대한 것과 비가 오지 않아 농토가 메말라 식량 부족 사태가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상과 북한과 한국의 통일시대가 언제 될 것인지 등입니다. 탈북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북한 내에 김정은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젊은 김정은은 군부와 주변의 정치 세력 사이에서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 열악한 식량 사정으로 인해 민심은 더욱 나빠진다고 합니다. 식량사정은 미사일 실패와 핵실험으로 인해 주변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몇 달 전 황해도 지역에서 2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1 고난의 행군을 시작으로 제2, 제3...의 고난의 행군은 결국 힘없

는 백성들만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때가 언제 일지는 몰라도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혁 개방이나 통일에 대한 시점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이는 주변의 환경이 가만히 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는 개혁 개방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주의를 했으나 김정은 체제로 변화 되며 이 단어는 북한 내부에서도 쉽게 사용하는 언어가 되어 버렸다고 요즘 언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기사들을 내어 놓습니다. 김정은은 인터넷 등으로 외국의 사이트를 검색하여 해외 정보들을 수집하라고 담화를 낼 정도로 그는 개방에 대한 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에 빠질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을 통제해 온 김정일 정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장(세종 연구소 수석연구원)의 말을 빌리면 북한을 방문한 사업가들의 말들이 북한의 정부 관료들도 북한이 곧 개방을 할 것이라는 말들을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로켓 발사 이후 중국 단동과 가까운 황금평특구는 현재 중국의 투자가 잠깐 유보 된 상태이지만 동북지역의 라진, 선봉 지역은 북한 관리의 말을 인용하면 착착 잘 돌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 수년 내에 북한이 개방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하게 된다면 한국교회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현재 북한 선교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북한의 변방 지역과 국경을 이루고 있

는 곳들입니다. 중국의 단동 지역에서 압록강을 타고 백두산 정상을 지나 두만강변을 타고 장백현, 회령을 마주보는 룽정의 삼합지역 그리고 도문의 계산둔을 거쳐 훈춘까지 일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두만강시와 훈춘의 방천 러시아 크拉斯키노지역도 이에 속합니다. **크게 보면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 전체가 간접선교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현재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이든 현지인들을 위한 것이든 모두다 복음을 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지방신문인 길림신문을 통하여 연변 주 공안국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연변지역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하여 그들 중국의 법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도 비자를 통한 실력 행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의 발표에 앞서 이미 중국 내에서의 탈북 사역은 북한과 중국과의 강력한 공조로 거의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탈북자들이 들어 올 것을 예상한 한국 정부의 제2 하나원 건립도 요즘 상황으로는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우리 한국교회는 극동아시아 지역의 정세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북한은 중국인들과 러시아 인들의 경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들여 보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의 변방지역을 집중적 선교 대상지로 삼았던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제자 양육된 현지인들을 북한을 향한 사명을 주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중국의 중

화복음단체에서 한국이 10만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중국은 100만을 파송 하겠다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던 현지 교회는 이젠 교회 내에 신학교를 만들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길러내어 중국의 내지와 서쪽으로 파송을 한지 몇 해나 지났습니다. 이는 이미 미국과 한국교회의 영향을 받은 중국 교회에서 그들만의 결실을 보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한국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중국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탈북자들을 통일의 주역으로 세우고 북한 지역의 교회 개척의 일군으로 삼기 위해 준비해 오던 저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에 온 몸을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이 북쪽에서부터 개방을 하기 시작한다면 중국과 러시아 인들에게 우리는 북한의 교회개척을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남쪽 후전선을 그들이 개방을 한다면 이미 통일한국의 국민이 된 탈북자들이 북한의 교회 개척을 담당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직접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을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년간 허리가 잘린 채 분단된 한반도는 서로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골이 패여 있습니다. 북한을 너무 잘 안다고 말하는 한국은 2만 5천명도 안 되는 탈북자를 충분히 안아 주지 못했습니다. 북한을 너무 잘 알기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들의 눈에 들어있는 가시만 찾기에 많은 시간을 우리는

허비 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중국 교회와 러시아 교회는 사회주의 체제를 이해하기에 우리보다 북한을 더 수용적으로 받아 들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제주도와 중국 남방지역과 인접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북한 사역자 양육 프로그램은 큰 기대효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폐낭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필박이 심할 때 많은 선교사가 피해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인접국이 우리들의 사역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북한에서 개방을 한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 됩니다. 한국교회의 북방선교에 대한 계획은 북방지역의 복음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을 통한 북한 선교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북한 사람들을 더 사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피부 색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국가간의 경계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한국교회는 모든 선교를 총체적으로 다 맡아서 하고 싶어 합니다. 선교사 한 명이 교회도 개척을 해야 하고 또 때에 따라서 농장도 해야 하고 신학교 사역도 감당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역도 한국교회가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선땅에 복음을 전해 준 선교사는 우리와 피부색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이 먼저 들어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일본이나 중국이 그 일을 감당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서양인들보다 일본이나 중국인
이 우리 조선을 더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은 그들을 조선선교의 주체로 사용을 하지 않
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방법에 마음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큰 우상에 머물러 있는 북한을 주님
의 복음으로 깨워야 할 것입니다.

My Vision

북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신현우

월드와이드 교회
Universal Care Member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함께 했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북한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 글을 통해서 나누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2006년 연말부터 시작된 미션 스쿨 섬김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강사로 오셨던 모퉁이돌 선교회 이삭 목사님의 간증이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와 닿았고, 북한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008년 월드와이드교회 전교인 중국 아웃리치 총무를 섬기면서, 성경 배달 사역을 함께 진행하였는데 이때 저의 눈 앞에서 펼쳐진 주님의 역사 하심이 저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알게 해 준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8년 월드와이드

중국 전교인 아웃리치에 직접 참여하셨던 사람들은 아마 당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처음부터 1,300여권의 성경을 배달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통해, 개인별 짐 가방에 나누어 담은 후, 중국에 들어가는 첫 관문 심양 공항에서의 아슬아슬한 통관은 시작에 불과 했습니다. 전체 일정 가운데 성경 배달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원래 정해진 장소와 사람에게 도저히 전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심양, 장춘, 연길 등으로 이어지는 전체 여정 가운데, 성경은 늘 우리의 짐 가방에 담겨져 있었고, 귀국하기 마지막 날 저녁, 심양의 모교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최종 시도 조차도 중국 공안 당국의 집요한 감시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년 전, 2008년은 북경 올림픽이 열렸던 해로서, 100여명의 단체 여행객인 우리 일행은 심양 공항에서부터 집요한 감시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그 많은 성경책을 들고 중국에 들어간 것은 어찌 보면, 정말 무모하리만큼 대담한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전달 기회까지 무산되고 나니, 아웃리치 총무를 맡은 저로서는 무지 답답하고, 이 성경책을 들고 다시 심양 공항을 통해 어떻게 귀국할 수 있을까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귀국하는 당일 아침에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일행 가운데 한 자매님의 이모부님 되시는 분이 국내에서 중국인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중국에 성경 배달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국내로 연락을 해보니 마침 우리가 묵고 있었던, 심양 시내 호텔 근처에 성경을 인수 받을 수 있는 중국인 형제가 머무르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이렇게 심양 현지와 국내, 다시 국내에서 심양의 중국인 형제로 연결되는 삼각 커넥션이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이제는 성경을 한 곳에 신속하게 모아야 하는데, 이미 출발을 위해 100여명이나 되는 우리 일행은 호텔 로비에 모여 있었던 상황이었고, 로비와 호텔 층 마다 공안의 감시가 삼엄한 환경에서, 개인의 짐에 있던 성경을 다시 모으는 것이 커다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서로 연락을 취하고 각 차별로 성경을 개인 트렁크에 모아서 제가 묵었던 방으로 모두 모으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방으로 다시 올라가자 중국 공안이 왜 다시 방에 가느냐는 질문을 했고, 한 형제님이 가이드 팀을 줘야하는데,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의논하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지혜롭게 잘 대답하면서 공안을 안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불과 30분 내외의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성경책이 트렁크 5개에 모두 모였습니다. 누군가의 트렁크는 비워 내어야 그 많은 성경책을 담을 수가 있었기에, 저희 부부 짐 가방 2개를 포함 나머지 세 사람이 더 헌신하여 5개의 트렁크에 그야 말로 성경을 빼곡하게 담았습니다. 성경을 담는 내내, 혹시나 공안 당국이 들이 닥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마음은 급했고 가슴은 뛰었습니다. 5개의 성경 트렁크를 중국 지하 교회 사역을 하는 현지인 형제에게 안전하게 모두 전달하고 나서야 저의 마음이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달했던, 성경은 그 해 겨울 북한과 중국 지하 교회로 잘 전달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주님은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일평생 성경책 한 권 갖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 지하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모두 전달 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전달을 마치고, 차에 올라서 안도의 한숨을 내 쉬고 나니, 주님께서 드디어 저에게 말씀 하시더군요 “아들아, 너 정말 수고 많았다” 주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가 임할 때, 감격의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북한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아웃리치 이듬해 2009년 봄, 정기 구독하던 모퉁이돌 월간 소식지 “카타콤 소식”에 실린 민들레 사역에 대한 안내를 보면서 그 동안 참여를 미루어 왔는데, 올해는 꼭 한번 참여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우선 아들하고, 상동 다락방의 한 형제와 함께 정기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따라 바람의 방향이 좋지 않아 조금 날리다가 기도하고 또, 날리다가 기도하고 하면서 이 사역이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고 오직 성령님께서 바람의 방향에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을 때 하고 실제 현장에서 풍선 하나하나를 가슴에 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늘로 올릴 때마다, 저의 마음에는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부어졌으며 북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많이 와 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한시도 저 땅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저 땅을 회복 시켜 통일 한국을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상동 다락방 식구들에게 민들레 사역을 권면했고 그 해 6월6일에는 15명의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민들레 사역에 다시 참여하게 되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2010년 초 미션 스쿨 아웃리치가 중부전선 철원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필승 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축복하며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에게 ‘내가 절대로 저 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북한을 회복하는 일에 저의 손을 사용하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들레 사역을 교회 공동체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주저했던 저를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민들레 사역에 100명의 동역자를 붙여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2010년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사역을 통해 정확히 100명의 동역자가 모이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일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풍선을 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늘로 올려 보내고 풍선이 점이 될 때까지 하늘을 응시하면서 풍선이 잘 날아가 북한 땅 곳곳에 잘 도착하기 염원했던 100명의 참여자들 모두는 북한을 향한 진정한 중보 동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2011년부터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복음 전단을 날려 보내기 위해, 주님은 우리 교회에 대북풍선단 사역을 하시는 이민복 집사님을 연결 시켜 주셨습니다. 한 개의 풍선에 수만장의 복음 전단을 실어서 신속하게 보내는 이 풍선이야 말로, 북한 땅을 진동 시킬 성령의 폭탄이 될 것입니다. 레이다에도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인지요. 올해로 벌써 2년째로 사역이 이어지고 있으며, 월드와이드 교회 기드온 청년부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북한 선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렇게 관심을 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최근 4~5년간 함께했던 사

역을 통해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북한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여 있는 그 땅, 아버지가 너무나 애타게 바라 보시고 있는 그 땅을 행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말입니다. 복음으로 이 땅이 통일된 그 날은 어쩌면, 순식간에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잠자리에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그 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죽음을 각오하고 국경을 넘어 탈북을 감행하고 있는 수 많은 동포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동포들은 중국 동북 3성 등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숨죽이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선은 이 땅에 먼저 와서 정착한 탈북 동포들을 교회가 끌어 안아야 합니다.** 그 동안 너무 다른 환경에서 서로 머물러 있었기에, 물과 기름 같이 섞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들을 포기하면 그 어느 누가 이들을 위로하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사랑 만이 남과 북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우리는 통일이 되기 전에, 주님께서 남한 땅에 먼저 보내 주신, 귀한 손님들인 탈북 동포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복음으로 무장 시켜 장차 북한이 열릴 때, 저들이 프론티어로 나설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일회성의 행사로 지나가는 사역에 그치지 말고, 한국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품고, 복음으로 재 무장 시켜 나갈지 이제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봅니다. 남한에 부어진 놀라운 물질의 축복이 그저 우리만 배불리 먹고, 잘 살도록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더 많이 흘려 보낼 수 있을 때, 주님은 진정, 이 땅을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의 되는 은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배달해 준 모퉁이돌 선교회 일꾼에게 정말로 아껴 두었던 생명과도 같은, 양식을 꺼내어 기꺼이 대접했다는 북한 성도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저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내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불편해지기를 각오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아 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셨던 것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포로들이기에, 당연히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가야 하고, 그 분을 사랑을 흘려 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 후방 지원 사역**에 대한 저의 평소의 비전을 나누면서, 이 글을 맺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2만 5천여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을 전세계로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어가고 있는데, 정작 파송 이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거의 맨 땅에 헤딩하기 수준으로 알아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되어 귀국하려고 하

면, 게스트 하우스 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하절기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재 충전을 위해 돌아오고 있는데, 게스트 하우스 구하기는 그야 말로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만한 여유가 없고, 나오면 어디든 바로 잡아야 하는 수준입니다. 올해 초 우즈벡에 파송 되었다가, 6년만에 안식년을 보내려고 이번 달에 귀국하는 친구 선교사가 머물 게스트 하우스를 구해 보면서, 선교사들을 위한 후방 지원 사역이 참으로 긴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는 비전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그동안 몇몇 분들과는 개인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마는 글을 통해서 나누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교사들이 귀국하게 되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우선 머무를 **게스트 하우스**입니다. 일가 친척 집에 머무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현실적으로 몇 달 씩 머물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보면 됩니다. 여기에다 지쳐 버린 몸과 마음을 치유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 선교사들이 가장 고심하는 자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MK 교육 센터**, 또한 선교사들이 함께 정보를 교류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세미나 공간**, 선교 현장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상담 센터** 등 그야 말로 원 스톱으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꿈을 주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지어본 이름인데, “**UC(Universal care) Global Mission Center**”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유니버설 캐어 선교회와 연결되어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라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러한 전방위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미션 센터, 열방의 선교사들의 현지 상황과 기도 제목들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저들에게 필요한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되어, 다시 국내의 후원그룹과 적절하고도 신속한 연결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은 미션 센터를 우리 유니버설 케어 선교회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마치 선교에 관해서, 공인중개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와 개인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선교사들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도 이 센터에 부여될 또 다른 하나의 사명이 될 것이라 봅니다.

진정한 선교의 시작은 선교사 파송 이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파송 이후, 지속적으로 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선교사들의 필요를 적절히 채워 나갈 때, 선교사들은 마음 놓고 사역할 수 있는 든든한 베풀목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파송만 해 놓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런 관심과 지원도 하지 않는다면, 마치 전쟁에서 최전방에 우리 군대를 보내 놓고, 병참 지원을 하지 않고, 맨 손으로 적과 싸우라는 것과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프론티어로 전방에 나선 선교사들과 후방 지원 사역이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선교 사역은 더 역동적인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원은 역시, 저들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는 중보 기도 사역일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한 사람에게 주신 꿈이 모두의 꿈이 될 때, 이 것은 함께 가슴으로 나누는 비전이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는 유니버셜 캐어 선교회가 되어, 저에게 주신 이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귀한 믿음의 동지들을 저에게 붙여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2012 Mongol Outreach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2012 Mongol Outreach

하나님의 꿈

홍지혜

복된 교회

연세U치과 치위생사

Universal Care Member



두 번째 몽골 행이었다. 벌써 일 년이 흘러 있었고 작년 몽골에서 주셨던 마음은 서서히 기억에서 잊혀져 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꼭 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몽골로 보내고 싶어 하시는지 의문이 생김과 동시에 그저 막 연히 가고 싶다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다. 고민하고 기도했고 결국 둘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은 쪽으로 선택을 했다. 입술로 “이번 몽골 아웃리치 가기로 결정 했어요”라고 말했을 때 마음에 찾아왔던 그 평안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 때 주신 평안함 덕분에 결정 후에 찾아온 혼자 가야 한다는 부담감,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걱정, 결정에 대한 후회, 기타 등등 수많은 인간적인 시험들을 하나님 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믿음으로 무사히 잘 통과 할 수 있었다.

과정들을 모두 거치고 몽골에 도착한 그 때부

터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주셨던 것들과는 다른 그들을 향한 것들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시작했다.

주신 세가지 키워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셨다.

몽골의 복음화를 위해 언제나 애쓰시는 황필남 선교사님, 황필남 선교사님처럼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꿈이라는 트무르 전도사님, 언어라는 달란트로 귀하게 쓰임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통역하는 친구들, 교회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몽골 교인들, 한 시간도 채 보지 않은 나에게 해맑은 얼굴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가는 우리를 축복해주는 따뜻한 아이들.

그 사람들 모두가 이 땅의 밝은 미래였고 모

두들 아름다웠다. 섬기는 위치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교만함으로 인간적인 시선을 가지고 몽골을 바라봤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보니 몽골에서 내가 도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몽골의 동역자들이 우리와 ‘함께’였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쉬지 않으시고 한국에서나 몽골에서나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셨다. 그 분들 모두 가장 귀한 모습으로 쓰임 받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이 감사했다.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도 몽골이 그리운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분들이 보고 싶은 이유도 크다. 그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렸다. 몽골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었다.

치과 진료 사역 중 둘째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정말 힘들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긴 진료에 많이 지쳐있었다. 4~5시 경엔 너무 지쳐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아무래도 절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네요. 전 이렇게까지 힘들 때에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힘들거든요! 다리도 무지 아프고...’

그 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애잔하게 들려왔다.

‘그래 힘들지? 참 귀하구나.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이 사람들을 사랑해주면 안되겠니?’

눈물이 났다. 불평에 대해 질책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겸손하신 모습으로 나에게 사랑을 부탁하시는 말씀이었다.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다 부족하지만 사랑이 가장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나를 아시고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 후에 길게 앉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볼 때, 나의 육체적인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진료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뻐했다면 그 시간 이후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기뻤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품어진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일이다.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라는 말을 어색해하는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걸 하나님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질 만큼 몽골 사람들이 훨씬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졌다.



마지막 사역 날 구멍 난 노란 반팔 티셔츠에 오른쪽 무릎이 길게 찢어진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키가 큰 아저씨가 진료 받을 차례가 되어 들어왔다. 문득 아저씨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다. 그 마음이 들자마자 하나님
의 음성이 들렸다.

'너 지금 이 사람 걸모습을 보고 있구나. 아니
야. 그 안에 있는 걸 봐야지. 그 영혼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야'
내가 바라보고 안타까워야 할 것은 그들의 행
색이나 물질의 부족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를 알지 못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었다.

나의 삶을 기준으로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해
잣대를 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이 그 분들에게 추억인 것처럼 지금
이 몽골사람들에게도 추억이 될 아름다운 시

절일 뿐이다. 불편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불쌍히 여길 것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
하시는 것은 영혼이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
신, 당신을 모르는 모든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직접 하나님을 전하지는 못해도 마
음으로 울며 기도 하는 것이었다. 이곳에 보내
신 가장 첫 번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놓치고 있었던 나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음성이었다..
준비한 사역이 모두 끝날 때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뛰는 꿈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았다. 그
리고 그 꿈에 내가 오랫동안 함께 하기를 원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꿈 중에 하나라는



것도 알았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삶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함께 선을 행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하늘의 천국을 이뤄가기를 바라시는 꿈.

누군가 자신의 꿈에 대해 부푼 마음으로 이야기 할 때 시큰둥하게 반응하거나 무시한다면 상처가 되지 않겠는가. 사실 내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크고 멋지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것이 내 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까지 알게 하셨기에 외면 할 이유도 없다. 올해 내내 이모저모로 심신이 지쳐있었고 그것 또한 몽골에 가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편안함보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몽골 땅에서의 하루를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통째로 선물하셨고 나의 수고와 피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다. 모든 일들 가운데 당신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그 말씀이 정말 와 달지 않았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뭔가 두루뭉술하고 뜬구름 같은 말씀처럼 느껴졌다. '해보면 안다'가 내 삶의 모토인데 이번 몽골 아웃리치를 통해 그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내가 먼저 구하지 않아도 그의 나라를 위해 섬길 때 마음의 소원을 기쁨으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한



다는 두려움도 사라졌다. 앞으로의 나의 선택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생긴 것이다.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하는데 쓰실 까봐 무서워요" 내가 처음 병원에 입사한 후 교회 기도회에서 고민하면서 말했던 고백이다. 그 때의 나를 생각하면 지금의 나는 아직 멀긴 했지만 장족의 발전이다. 아직 많이 남아있을 먼 길을 끝까지 하나님과 같이 걷기를 기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내일이 기대 되는 오늘이다.

Universal Care 선교 장학생

나랑 체첵크 신학생 간증



저는 몽골 으من고비(도) 바양 달라이군에 있는 예수교회의 담임 전도사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2004년 5월에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가족은 빛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어려운 중에 태어난 것(운명)에 대해 고뇌하며 이 세상에 살고 싶은 기대감이 없는 가운데 정처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에 주인으로 모셔 들였고, 큰 기쁨 가득한 삶이 시작되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8년 동안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8년 기간중 4년동안은 제가 태어난 바양달라이 군에 있는 교회에서 4년간 (교회 책임자로) 섬겼습니다. 그 후에 으من고비 도청소재지에 있는 중앙 센타 교회 격인 나착도르찌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예수 구원의 교회"에 있는 장로교 연합 신학교 분교에서 2년간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 후에 장소를 600Km 옮겨 지금 배우고 있는 장로교 신학교 울란바토르 본교에 편입학하여 분교에 이어서 3학년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생활로 크게 기뻐하며 배우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은 저의 삶을 참으로 여러 가지로 축복하셨습니다.

첫째, 그것은 빛의 눌림으로부터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바양달라이 군의 주민들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행정 정책회의 의장직을 주시여 그 권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고 훈련시키시고 계심을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저에게 성경을 배우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주셨는데 바로 여러분의 교회와 기관(**유니버설 케어**)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 귀중한 마음을 제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넓은 관용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장학금의 혜택을 입게 해 주신 여러분들께 주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이 있으시길 빕니다!

감사드립니다.

2012년 4월 22일 **나랑 체첵크** 드림.

Universal Care 후원 기관 소개

All Nations Christian Academy (ANCA)

히즈 킹덤 인터내셔널 선교회 (His Kingdom International)

2012년 5월부터 장승기 선교사님이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히즈 킹덤 인터내셔널 선교회와 MK 학교인 All Nations Christian Academy (ANCA) 를 본회 후원 기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ANCA를 통하여 Universal Care 가 꿈꾸고 있는 MK 사역에 대한 지경이 더 넓어지길 소원합니다. 이번 호에는 ANCA 교장이신 인세진 선교사님의 글과 학교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편집부

활렐루야



몽골에서 10여 년간 교육 선교 활동을 해오다 새롭게 부어주신 MK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이곳 양평까지 와서 ANCA(MK학교)를 설립하고 현재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인세진. 이해숙** 선교사입니다

저희 ANCA는 All Nations Christian Academy로 이름에서 나타나 있듯 이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고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 할 수 있게 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교육기관입니다. MK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에 중점을 두고 설립되었으며 지금은 선교사 자녀들과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제학교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현재 유치원을 포함해서 약 5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중 50%정도가 MK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교가 MK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비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점점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더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교지에서 온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안에서 평안과 안정을 찾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그럼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이 편안하게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지난 5월에 옥천면에 제2캠퍼스와 기숙사를 겸하는 곳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레잘프라는 이름의 펜션 이었는데 불어로 알프스라는 뜻이고요 말처럼 주변 환경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 전에 기숙사가 없어 저희 집에서 7명의 아이들이 함께 지내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제 아내와 또 늘 자기 방을 다른 MK 아이들에게 내주어야 했던 우리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계속 이렇게 하기에는 학교사역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기숙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끼게 되어서 저희 이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왔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학교와 1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을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열방공동체교회 성도중의 한 부부가 이 펜션 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매칭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임을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역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하나님께서 더 급하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저희는 그저 하루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바쁘게 순종하며 나아 갈 뿐입니다. **지난 해 11월 초 선교사 자녀학교(All Nations Christian Academy)를 정식 선교회(His Kingdom International)로 등록을 하며 여러 선교단체들과 연합을 한 아래로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는 벌써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이번에 새롭게 개원한 기숙사에 들어와 공부하기 위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국제선교단체인 인터서브와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함으로 앞으로 MK 사역에 큰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터서브 단체는 160년간의 오랜 해외선교의 노하우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의 선교사들만 200가정이 넘는 큰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이미 인도에 헤브론 스쿨, 우드브리鞠 스쿨 등 여러 세계적인 기독국제학교를 설립하여 오랜 세월 학교사역에도 관여를 해 왔으며 특히 영국의 런던에 All Nations 신학대학을 설립하여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는데 큰 공헌을 해 온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좋은 MK School을 세우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2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갈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큰 가치가 있는 일이라 여기며 감사함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안에서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에게 부탁 드리고 싶은 기도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미권에서 들어오시는 많은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오는 7,8월 달에 들어오시는 원어민 사역자들이 이곳에 들어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리며 그들이 북미권의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무장이 되어 MK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2. 한국인 사역자들과 북미권에서 오신 사역자들간의 지역적,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뛰어 넘어 하나님 나라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한 마음이 되어 이 어려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 안에 연합을 위하여 기도 부탁 드립니다.
3. 저희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생긴 이후 많은 자녀들이 저희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MK들에게 장학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모든 자녀들을 다품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하는 각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분들이 일어 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4. 선교지에서 들어오는 선교사자녀들을 어머니와 같이 따듯하게 품는 ANCA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 마지막으로 저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저희 기관에 소속한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그분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게 하시어 세월을 아껴 이 시대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학교와 사역을 위하여 늘 사랑해 주시는 모든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All Nations Christian Academy (ANCA)

1. 학교소개

ANCA 는 다음세대를 이끌어 가며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고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 할 수 있게 하는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MK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에 중점을 두고 설립되었으며 지금은 선교사 자녀들과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제학교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저희 ANCA 는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로서 각 나라에서 영어로 교육받던 선교사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영어로 교육을 받으며 그 교육과정이 다른 나라에 가서도 홈 스쿨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연결 해주는 새로운 시스템의 학교입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돋고 그에 필요한 영성과 인성을 함께 교육하기 위해 헌신된 크리스천 영어권 선생님들을 선별해서 채용하고 있으며 선생님들의 기도와 지속적인 상담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학교에서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사회성 훈련으로 봉사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 학교역사

2004년 ACTS (아세아 연합 신학교)에서 AIA 언어교육원내 국제학교 시작.
손봉호 교수님과 백인숙 (MK 네스트 대표)
교수님과 함께 MK 학교로서의 설립을 위해 모임시작



2005년 독립하여 앵카를 설립
(유치원 과정부터 시작)

2007년 할렐루야교회 김상복 목사님을 모시고 MK 학교로 개원예배

2007.1.24 CGN TV

< MK 위한 국제학교'ANCA'문 열어> 소개

<http://news.cgntv.net/sub.aspx?pid=2136&vid=31913>

*2007년 1.28 국민일보에 MK 학교로 소개

*2011. 총신대 영어교육학과와 자매결연

/ 필리핀 힐스아카데미와 MOU

2011.11.5 히즈킹덤인터내셔널 선교회 창립

(His Kingdom International)

(이사장 : 장승기 전 몽골선교사,

현 연세느낌표지과 원장,

누가회 이사, 인터서브 이사)

3. 인세진 교장소개

몽골에서 10년간 교육 선교 활동을 하였으며, 그 이후 계속하여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교육 선교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박사과정을 수료 했으며, 그 외 교육 선교에 필요한 신학, 사회복지 등을 병행 전공하여 교육 선교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ANCA 교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총신대학교에서 영어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997년 ~2003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ILC(International Language Center)선교활동

2012.6.15 ANCA 제 2 캠퍼스(기숙사 운영)

개원예배/ Interserve 선교회와 MOU 체결

<2012.6 월 현재 학생>

유치부(13명) 1학년(6명) 2학년(8명)
5학년(4명) 6학년(9명)

*제 2 캠퍼스:

: 8학년(5명) 10학년(4명) 12학년(3명)

총학생 52명 중 26명 MK: 50% (중/고등부
90%가 MK)



(현재까지 20여 명의 MK들이 교육을 받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감)

4. 교육목적 (Educational Purpose)

우리자녀들을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아 이 땅에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글로벌 리더(Global Servant Leader)로 교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5. 교육목표 (Educational Goal)

- 1) 영성 (Spirituality)
- 2) 전문성 (General Specialist)
- 3) 자기주도학습 (Pro-Activity)
- 4) 섬기는 리더십 (Servant Leadership)

5) 국제적 능력배양(Global Ability)

6. ANCA 교육과정

유치부 K5~12 학년 중.고등부과정이 있습니다.
유.초등부 과정은 전 과목 미국인 교사와
영어로 수업하게 되며 미국의 스텐포드 시험
인증제도를 통하여 학력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교재는 미국 내 기독교 커리큘럼
인 밥존스(BJU) 대학의 교재위주로 사용하고
Reading 과 Social study 과목은 Harcourt
교재를 Science 는 ACSI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 과정은 인터넷을 통해 미국인
교사가 각 과목을 담당하는 차별화된 7-
STAR 온라인 프로그램 수업 과정과, 미국인
교사들에 의한 오프라인 영어수업과정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TOEFL. SAT,
Ethics. Art, Music. P.E)

ANCA 제 2 캠퍼스(기숙사 운영) 소개

1. 소개

저희 앵카 제 2 캠퍼스에서는 2012.5 월부터
중.고등과정이 함께 새로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며 경건을 훈련하고 학업을
연마하여 영.육간에 강건한 그리스도인
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생활관에서 훈련 받은 많은 ANCA 인들이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위치: 양평읍 옥천면 신복리 73-3 -국립
중미산 자연휴양림 바로 옆입니다. (전 레잘프
펜션)

2. 목적

첫째, 경건 훈련을 통한 신앙 성장,
둘째, 공동체 생활을 통한 기독교적 인격
성숙, 섬김과 나눔의 실천,
셋째, 집중 교육과정을 통한 실력 배양,
넷째,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3. 특성

새벽예배와 금요예배, 그룹기도회를 통한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며 코이노니아를 통한
건강한 자아와 이웃 발견, 공동활동을 통한
다양한 체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의
생활, 언어 훈련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7-Star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정교사의 학습관리와 함께 앵카 Teacher
로부터 Art, Music, 체육, 언어영역 (TOEFL
/SAT 준비) 등을 함께 병행하여 수업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과 체계적인 수업으로
학습면에서 보다 우수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 규모

제 2 캠퍼스는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중미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관(카페 및
도서실)과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교실 2 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과 족구장이 있고 포켓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I

천수해리요의 하루 여행



GBT 선교회

엄천영, 안수아 선교사

새벽 4 시 20 분에 일어나 공항으로 달렸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공항에서도 바삐 움직였습니다. 다섯 가족이 함께 타지를 가는 경험이 처음이었기에 아이들을 화장실을 보내고 배를 듣든히 채우게 하며 이런저런 모양으로 단단히 준비하느라 신경을 썼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이륙한 비행기는 4 시간이 지나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를 마중 나오기로 한 차가 오지 않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30 여분이 지나니 앞 유리창에 "The Ums"라고 쓰여져 있는 종이를 붙이고 있는 차 한대가 왔습니다. 1 시간을 갔습니다. 그리고 'SIL 마닐라 guest house'에서 그 동안 이메일을 주고 받았던 미국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습니다. 저희들을 배려하기 위해 'Asian Restaurant'라는 간판이 있는 식당에 가서

한국 음식이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가 늘 먹던 한국 음식이었을까요?
^^;

그리고 6 시간을 또 달렸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내내 기도하며 달렸습니다. 쭈욱 뻗은 고속도로가 아닌 2 차선 시골길인 "그들의 Highway" 위를 말입니다. 지프니와 트라이시클과 자전거들이 가득 차 있는 길을 중앙선을 침범해가며 "쌩~! 턱! 부~웅! 꺽! 꺽! 꺽!"을 반복해가며 달렸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한국 시각 10 시경에 (필리핀 시각 9 시) 도착했습니다. 먼저 도착해서 정착하고 있던 저희 단체 선교사님 가정의 저녁 대접을 받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와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이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

습니다.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우리들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싸가지고 간 전기 장판 두 개를 아이들의 매트 위에 깔아주고 그 위에 온 가족이 앉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난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필리핀의 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따갈로그 많이 배워야지!’

‘재래 시장 가서 필리핀 사람들 만나며 친구 많이 사귀어야지!’

‘관찰 일기도 써봐야지!’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하고 싶은 것들과 할 수 있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건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깨닫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 이야기말로 진정한 축복이다. 나는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출발을 알리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며 중요한 것들이 가장자리로 밀려나지 않도록 상기시켜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선택하신 그 분의 자녀들인 우리가 흡없고 거룩하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하심을 믿고 마음을 다져봅니다.

바기오 생활

저희가 도착한 6 월부터 필리핀은 우기가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한국을 갈 즈음에 건기로 바뀌게 되구요. 내내 비가 내립니다. 내리고 내리고 내립니다. 저희들이 있는 곳은 해발 1800 미터의 산에 있는 작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흥수가 날 일은 없습니다. 비를 좋아하는 저는 내내 비가와도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치만, 잠시 잊고 있었던 건 저에게 아이들이 셋이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깥 놀이를 해야 하는 아이들에겐 내내 내리는 비는 그들을 살짝 답답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연신 먹어댑니다. 바깥 놀이에 대한 보상 심리인지, 다른 환경에 적응하느라 본능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먹을 것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서장을 보고 와야 하는데, 지난 일주일간은 다섯 번을 시장에 갔습니다. 작은 냉장고이지만 채워 넣기만 하면 금새 음식은 동이 나고 맙니다. 겨울에 돌아가면 온 식구가 통통 살이 붙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김치를 담궜습니다. 깍두기도 담구었구요. 한국에서 한번도 해보지 않은 김치를 제가 여기서 담구어 보네요. 처음이라 소금 양 조절에 실패하여 짜지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으하하!! 다음 번에는 백김치와 물김치도 담궈 볼 예정입니다. 비싸기는

하지만 바기오 시내에 한국 식료품 가게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이 한국보다 배 이상으로 걸립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그때마다 시장에 가서 사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음식을 장만하는 도구가 다양하지 않고 마늘과 같은 것들도 집에서 일일이 까서 칼로 다져야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는 중에도 손으로 빨래를 하였습니다. 순 냄새가 걱정이었는데,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구입하신 라디에이터가 있어서 한 벌씩 옷을 올려놓고 말렸습니다. 이렇게 6 개월 하다 보면 혹시 살림 박사가 되어있을까요?

엄선교사는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간단한 생활 영어로 살아갈 수 있는 학교 밖의 환경과는 달리 수업도, 예배도 영어로 하는 이곳에서 하고 싶은 말을 맘껏 하지 못하고 남이 웃을 때 함께 웃지 못해 살짝 답답한 마음이 드는 모양입니다.

해리요's Story

"하나님, 맛있는 망고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쉬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전 드리는 가정 예배에서 돌아가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으로 와 이제 적응하고 있는 시간들 중에 '맛있는 망고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해나가 드렸습니다. 리나는 '쉬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웬, 쉬는 시간이냐고요? 필리핀에 와서 아이들이 갈만한 학교를 이곳 저곳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결국 세 아이 모두 홈스쿨링 하기로 결정했습니다.(우리는 수아초등학교, 수아 어린이집이라고 부릅니다.^_^) 45 분 수업에 15 분 휴식 시간을 가져가며 오전, 오후를 나누어 몇 시간을 공부하였는데, 한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시작한 공부가 아이들에게 다소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치만, 중간 중간에 가지는 쉬는 시간이 꿀맛이었는지 기도 시간에 쉬는 시간에 대한 감사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해나가 리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쉬는 시간이 있는 것이 그렇게나 좋았어?" 그랬더니 "언니, 쉬지 않고 계속 공부를 했어 봐,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 그러더군요.

감사 기도제목을 들으며 아이들의 세세한 시각을 저 또한 배워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 깊이 맛있는 망고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쉬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묵상해봅니다.

기도제목

1.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그 분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2. 바기오에 온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영어 훈련, 문화 적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3. 고산지대에서 사는 삶 중에 가족 모두가 적응 잘 할 수 있는 지혜와 육적인 건강이 있기를
4. 홈스쿨링으로 배우는 아이들과 가르치는 엄마에게 주가 주시는 기쁨과 열심이 있기를
5. 파송교회인 서문교회와 협력교회와 단체 (오산 서문교회, 유니버셜 케어)가 주안에서 부흥하고 아름답고 견고하게 성장해가기를

선교지에서 II

남아공에서 전해드립니다.

배성호 목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각 지체와 교회에 문안 드립니다. 남아공은 옷 짓을 여미는 겨울로 접어들었고 우기가 시작되어 2 주 동안 밤과 낮 구별 없이 비가 내리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뭄으로 메마른 고국 땅에도 폭포수 같이 쏟아져 온 대지를 적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1. 예수생명교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이 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2~47

각 세대 마다 남녀가 갖는 소망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가끔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라고 물곤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부분의 유치부 아이들의 대답은 “무엇 무엇이 갖고 싶어요”라고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는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사회에서 보고 듣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선망의 대상들이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서 중 고등부로 접어들면 그들의 대답은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장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갖고 있는 꿈을 이루고자 준비 해 나가는 아이들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 할 시기에는 더 선명한 소망을 말하며 그 마음 속에 소원들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삶을 포기 하는 자리에 머무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열망이 있기에 예수생명교회는 세상이 등진 아이들을 위하여 존재 합니다. 세상에 세우신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은 사도행전 2장 42~47 절에서 보여 주고 있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모습으로 회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생명교회는 그 길을 인도 하는 길잡이가 되고자 기도 하며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에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열망하며 그 행하심을 따라 나아 갔습니다.

오랜 시간 선교의 영역에서 벗어나 보지 않았는데도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 깨닫는 대는 많은 시간이 필요 했던 것 같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분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분이 세우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선교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달려 온 선교의 여정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 해 주시기를 기도 하며 온 길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는 일군들에게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 가시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아무도 주목 하지 않았던 겨자 씨와 같이 작은 예수생명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셨고 예수생명교회에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 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기를 원하는 한 교회를 통해서 예배당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분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생명교회의 터전 위에 머리 돌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생명교회의 터전 위에 예배의 처소가 설치 되는 날 우리 모두는 기뻐서 뛰었습니다. 그 날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며칠 동안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예수생명교회의 미래를 그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예수생명교회를 상상 해 보았습니다.

예수생명교회가 세워진 지역에는 약 2 만 5 천명의 인구가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4 개의 학교가 있으며 30 여 개의 보육원 그리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생명 교회에서 약 500M 정도의 거리에 정신 장애자를 돌보는 특수 학교가 있습니다.



예수생명교회의 터전 위에 예배의 처소로 사용 될 두 개의 컨테이너가 설치되었습니다. 녹슨 컨테이너에 밝은 색의 페인트를 칠하고 교육관으로 쓰여질 두 개의 컨테이너 내부에 합판을 붙이고, 밝은 빛이 비출 수 있도록 두 개의 창문을 내고 문을 만들고, 컨테이너 사이에 나무 바닥을 놓아 예배실을 만들고, 노란색 테두리에 올타리를 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 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무 하는 날을 인내 하며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예수생명교회의 아이들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 하실 때 현재 설치 된 컨테이너는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옮겨져 교회를 세워 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2. 예수생명교회 리더십

예수생명교회의 리더십 훈련은 학교의 방학을 맞이 하여 고향으로 떠난 아이들이 많아 3 주간을 쉬게 되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게 되면 다시 돌아 올 것입니다. 아이들이 돌아오면 유니폼을 맞추고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는 직분의 예복을 입히려 합니다. 서로가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예수생명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는 리더로서 성장 해 가길 기도 드립니다.

3. 한인 청소년 예배

지난 5 월 13 일 포트 엘리자베스에서 한인 청소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과 이곳에서 유학 하는 학생들이 모여 찬양과 말씀 그리고 교제 하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동안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함께 이루어 가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 하며 용서와 화해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지금까지 지내 온 날들은 결코 혼자 걸어 온 길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 합니다. 지나 온 길과 시간들을 돌아 볼 때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 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 좋은 선생과 안내자가 되곤 합니다.

그 분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생명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자

그 분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생명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협력 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삼가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나날이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남아공에서

배성호 한은경 영은 지은 하은 올림



선교지에서 III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신동주 목사
필리핀 엥겔레스

하루가 다르게 무더워지는 한국을 뒤로 하고 6 월 22 일 고국을 떠나왔습니다. 지난 5 월 22 일 한 달간 일정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쉴 틈 없이 중부권역을 다녔습니다. 이제 파송 받은 지가 2 년밖에 안된 초보 선교사의 첫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목적은 “PAC(팜팡가 농업대학교)앞 교회 및 선교 센타 건축을 위한 모금과 건강검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얼굴도 모르는 저희들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던 몇몇 교회들을 찾아

뵙고 함께 비전을 나누는 복된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의 여행은 출발이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비자 연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필리핀에서 출국하기 직전 3 일 동안이나 마닐라 이민국을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음에도 저희 가정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 3 장 17 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땅을 밟기 직전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요단강 한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에 발을 들여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믿음을 요구한 것이지요. 한국을 출국하기 직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더라도 내가 이를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출국하라. 그러면 내가 나의 방법으로 나의 일을 이를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제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것으로 받고 출국하여 여러 후원교회들과 후원자들을 찾아뵙고 저희가 방문한 목적을 설명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후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한국사역을 마무리하고 6 월 23 일 필리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건축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건축은.....

지금은 설계도와 조감도를 설계회사에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7 월 7 일) 완성될 예정입니다. 설계도와 조감도가 완성되면 시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진행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기간이 단축되고 속히 건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HAU (홀리엔젤대학교)에 동아리가 등록되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동아리 등록 서류를 HAU (홀리엔젤대학교)에 제출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HAU 는 필리핀의 전형적인 카톨릭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필리핀 정부에 등록한 NGO 이름(JWC-Jesus world community)으로 동아리 등록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내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드디어 동아리 등록이 이루어져 지난주 6 월 21(목)-23(토) 회원 모집을 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약 200 여명의 학생들이 기꺼이 회원으로 등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성경공부에까지 참여하여 온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수 제자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사역에 함께 참여하여 주십시오. HAU 사역의 중심에

서있는 라베간사와 마르샤 간사, 김지혜 단기선교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영혼사랑으로 사역에 임하여 사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고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TTS 훈련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1 기 훈련생(조넬), 2 기 훈련생(쟈닌, 모니카, 클라리스, 제제, 로렌스, 레오)이 격주 금요일 TTS(디모데훈련학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TTS(디모데훈련학교)는 예수제자운동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캠퍼스에서 복음전도자요, 제자 훈련가로 살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훈련시켜 각 대학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훈련생들이 이 훈련을 통해 잘 다듬어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 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이들이 캠퍼스의 미래요, 필리핀과 하나님나라의 미래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어려운 상황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십시오.

7 월달에는.....

7 월 8 일부터 18 일까지 경남지구에서 약 15 명의 단기 선교팀이 양겔레스에서 사역을 도우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경남지구의 방문을 통해 캠퍼스에서 외롭게 사역을 하는 지체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단기선교를 오는 경남지구 지체들이 이 기간을 통해 선교지를 이해하고 선교적 마인드로 무장하여 장기적으로는 장기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은....

한국방문기간 중에 아내와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가끔씩 잠을 자다가 가슴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었고, 저는 그동안 B 형 간염 보균자였었기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혈액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판정이 나왔고, 저는 B 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아서 6 개월을 복용할 수 있는 약을 받아서 왔습니다. 이 약을 먹음으로 몸이 건강 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사역과 짐을 조화롭게 잘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리와 경흠이는 새 학년을 맞아 월요일부터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정으로 약 3 주를 결석한 이후로 학업을 따라가기가 벅차지만 열심히 학교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첫째 예리는 2 학년이라 내일 첫 번째 시험을 치릅니다. 예리, 경흠이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학업에도 진보를 보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막내 경찬이는 미루었던 예방접종을 한국에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자기도 학교에 가겠다고 응석을 부립니다.

이제 짧은 글을 맺을까 합니다. 지난주일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함께 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던 문장으로 요즘 저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기쁨이 가득하고
외적으로는 온유와 겸손함이 인격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영적인 삶도 지혜롭게 관리하셔서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시는 날들 되시길 간구하며 이만 줄입니다.

기도제목

- 건축 허가를 시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 HAU(홀리엔젤대학교)에 동아리 등록이 되었는데, 캠퍼스사역에 부흥이 있도록과 담당하고 있는 라베간사 부부와 김지혜 선교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 디모데 훈련을 받고 있는 지체들이(조넬, 자닌, 모니카, 제제, 레오, 로렌스, 클라리스) 훈련을 통해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제자로 태어나도록
- 날마다 성령충만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2012년 6월 마지막주에 필리핀 양겔레스에서
신동주, 이경면, 예리, 경흠, 경찬 드림**

선교사 기도제목

러시아 로스톰 나 다누 김우섭선교사



몽골 황필남선교사

www.pnhwang.com



1. 교회 및 신학교 건물 건축을 위해

- 건축부지 340 평을 계약하였음.
- 8 월부터는 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 부족한 재정을 위해

2. 신학교를 위해

- 신학생들이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 강사들과 강의를 위해
- 신입생 모집을 위해
(소명받은 이들이 입학하도록)
- 멀리서 오는 학생들이 지치지 않고 배우는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3. 교회를 위해

- 부흥과 성도들이 주의 사역에 헌신하도록

4. 러시아 교회의 부흥을 위해

- 5. 지민이 진학을 위해
(2013년 5월 고등학교 과정 졸업)

5. 가족들 건강과 성령충만을 위해

1. 여름 몽골 단기팀들과 잘 연합하여 사역하도록

2. 이양해준 온 민족 추수교회와 모직 목사가 목회를 신실하게 계속하도록

3. 지방 교회가 6 개가 지난해 더 자립 하였는데 남은 교회들이 더 자립하도록

4. 여름에 몽골에서 2 달간 사역하면서 건강을 지키도록

5. 가을에 미국 인디아나 주에 몽골인 작은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6. 가을에 샌프란시크코 오클랜드 텐버 단기 선교를 위하여

7. 가을학기에 버지니아 크리스챤 대학에 몽골인 학생 45 명을 잘 가르치도록

8. 몽골 우우르딩 게게 교회 개척 20 주년 기념 연합집회를 위하여(11 월 1 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 남아프리카공화국 배성호선교사

www.josephbae.com



1. 성령의 지혜를 품은 일꾼들을 일으키소서
2. 이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날 선교사 후보생들을 일으키소서
3. 예수 생명교회의 부흥과 한 영혼, 영혼들을 위하여
4. 2012년도 비전을 위해서

|| 디아스포라신학교 김영제목사



1. 새로운 신입생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2. 러시아어 예배 리더와 부흥을 위하여
3. 키르키즈 예배와 리더 루슬란 전도사와 부흥을 위하여
4. 학생들을 두고온 가정과 식구들을 위하여
5. 기숙사 생활과 직장 문제와 안전을 위하여
6. 신학교 운영과 졸업생 후원의 재정적 문제를 위하여
7. 좋은 교수진, 좋은 통역자, 후원자를 허락 하소서
8. 디아스포라 신학교 졸업생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9. 후원교회와 기업과 성도들 가정을 위하여

|| 러시아 연해주 정태화 선교사



1. 하나님께서 연해주에 북한 선교에 대한 많은 비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 연해주에 많은 깃점을 확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베트 교회도 앞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연해주에는 아직 교회가 없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전도 지역에 복음의 문이 계속 해서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을 맡고 있는 담당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서 부흥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일어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4. 홀로 계속되는 사역에서 탈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당하고 있는 라베간사 부부와 김지혜 선교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3. 디모데 훈련을 받고 있는 지체들이(조넬, 자닌, 모니카, 제제, 레오, 로렌스, 클라리스) 훈련을 통해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제자로 태어나도록

4. 날마다 성령충만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 B 국
주바울 선교사



|| 필리핀 앙겔레스
신동주 선교사



- 건축 허가를 시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 HAU (홀리엔젤대학교)에 동아리 등록이 되었는데, 캠퍼스사역에 부흥이 있도록, 그리고

1. 하고 있는 사역이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 묵상사역, 주일예배모임, 가르치는 사역, 장학회 사역.

가르치는 사역은 정기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쪽의 여건과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요. 장학회 사역은 이곳의 한인성도들이 부탁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셋팅을 한 것인데, 적절한 위임을 조만간 해야하겠습니다. 하노이에 사는, 시골서 올라온 가난한 청년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묵상사역도 한국의 초기 전례(前例)를 따라 B 국 신자가 중심에 서고 저희들이 돋는 형채로 가는 것이옳을 것 같습니다. 성서유니온 스텝에 부디 적절한 현지 신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끌어오던 사역을 현지 신자가 중심이 되고 저희는 돋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들 여러 사역들 가운데 , 점차 위임할 사역은 위임하고, 또 뒤에서 도울 사역은 돋고, 또한 제가 이끌어갈 사역은 이끌어 가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잘 판단하고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독 부탁을 드립니다.

2. 7 월 23-24 모 시(市)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목상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주일오전 예배 모임을 일단 연말까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 제가 이끌어갈지, 다른 모임에 위임을 할지 주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4.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5. 과거 전도의 접촉점으로 어학센터을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 그후 다른 한국 분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다시 그만둔 후 과거의 B 국인 교사가 지금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크리스챤이 아닙니다. 지난 번에 한번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가 너무 바빠서 더 이상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믿게 된다면 처음의 소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기도부탁을 드립니다. 그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도록. 그리고 센터는 지금은 저는 운영에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1. 사랑의 밥차가 제작 단계입니다. 순적하게 주방 설비가 채워질 수 있도록 (자동차는 한국에서 선적중입니다.)
2. 레인보우 뮤직스쿨 9 월 1 일 개원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순적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3. 고아, 과부들을 섬기는 사역을 위한 센터가 준비되게 하소서
4. 언어의 진보를 주소서

GBT 선교회 엄천영 안수아 선교사



협력선교사 송찬송 선교사

1.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그 분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2. 바기오에 온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영어 훈련, 문화 적응)
3. 고산지대에서 사는 삶 중에 가족 모두가 적응 잘 할 수 있는 지혜와 육적인 건강이 있기를
4. 홈스쿨링으로 배우는 아이들과 가르치는 엄마에게 주가 주시는 기쁨과 열심이 있기를
5. 파송교회인 서문교회와 협력교회와 단체(오산 서문교회, 유니버설 케어)가 주안에서 부흥하고 아름답고 견고하게 성장해가기를



1. 북미권에서 들어오시는 많은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오는 7,8월 달에 들어오시는 원어민 사역자들이 이곳에 들어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리며 그들이 북미권의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무장이 되어 MK 사역을 잘 감

당하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2. 한국인 사역자들과 북미권에서 오신 사역자들간의 지역적,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뛰어 넘어 하나님 나라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한 마음이 되어 이 어려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 안에 연합을 위하여 기도 부탁 드립니다.
3. 저희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생긴 이후 많은 자녀들이 저희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MK들에게 장학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모든 자녀들을 다 품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하는 각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분들이 일어 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4. 선교지에서 들어오는 선교사자녀들을 어머니와 같이 따듯하게 품는 ANCA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 마지막으로 저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저희 기관에 소속한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그분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게 하시어 세월을 아껴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 시고자하시는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름부으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Universal Care 소식 및 기도제목

1. Universal Care 선교회지 2012 여름호 출간

2012년도 “Universal Care” 선교회지 여름호(통권 11호)가 출간되었습니다. 선교회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책자나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012 몽골 아웃리치

Universal Care는 2012년 6월 5일(화) ~ 6월 10일(주일) 4박 6일의 일정으로 월드와이드 부천 공동체 주최의 몽골 아웃리치에 참여하였습니다. “너는 이방의 빛이 되라”라는 주제 아래 몽골 백성들이 이방의 빛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3. MK를 위한 국제학교 ANCA 후원

2012년 5월부터 히즈 킹덤 인터내셔널 선교회(이사장 : 장승기 전 몽골 선교사) 산하의 ANCA(All Nations Christian Academy), MK 국제학교를 물질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를 통하여 우리 선교회가 꿈꾸는 MK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4. Universal Care 열방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매주 세계 선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신 vision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연세 U 치과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 후원 계좌 안내

신한 110-302-594082 예금주 : 최혜원

6. 선교사 동정

- 1) GBT 소속 엄천영 선교사님 가족이 언어 훈련과 문화적응 훈련을 위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셨습니다. 계속되는 훈련의 시간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2) 필리핀 앙겔레스 신동주 선교사님 가족이 선교센타 건축과 건강 검진 등을 위하여 5월 22일부터 한달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가셨습니다.
- 3) 몽골 황필남 선교사님께서 단기팀을 섬기기 위하여 몽골로 재입국하셨습니다. 계속되는 몽골-미국에서의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 정태화 선교사님 가족이 7월 2일 Universal Care 정기예배 등의 일정으로 한국에 방문 하셨습니다.
- 5) 캄보디아 송원식 선교사님께서 선교지 내에서의 ‘밥차사역’을 위해 차량을 구입하여 캄보디아로 들어 가셨습니다. 계획하시는 사역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 6) 러시아 김우섭 선교사님께서 파송 교단(고려)의 후원으로 신학교 부지를 매입하셨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건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7) 그동안 U.C 몽골 신학생 장학금을 후원 받았던 에르덴 호익 전도사님께서 이번 학기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사님께 전해졌던 장학금은

새로운 신학생을 선정하여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7. 제 12 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일시 : 2012년 7월 7일(토) 오후 5시 30분

장소 : 월드와이드교회 6층 로뎀홀

강사 : 정태화선교사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황영석, 윤금희, 홍성훈, 정경미, 김세웅
신보균, 정창근, 권현주, 김병광, 박말향
김혜식 정진호, 최혜원, 연세U치과
장소후원 : 월드와이드교회

기도제목

-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를 돋는 요셉의 창고를 허락하여 주소서.
-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소서.
-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전세계를 감당하는 선교회 되게 하소서.
-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게 하소서.
- Universal Care 를 통하여 전세계 흩어진 선교사들과 긴밀한 Network 가 형성되게 하소서.
- 2012년 사역 계획 위에 주의 기름부음을 주소서
- 북한 땅에 우상을 훌어내고, 그 곳에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Universal Care

Universal Care 는 2009 년 6 월 23 일 첫 정기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Universal Care 는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도구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조력하여 그들의 사역과 삶을 돋고 살피며 더욱 힘있게 사역할 수 있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 네트워킹하여 하나님의 재화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창고'의 역할을 하는 선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현재, Universal Care 는 몽골 황필남 선교사, 러시아 김우섭 선교사를 비롯한 8 명의 선교사와 2 개의 선교기관을 후원하고 있으며, 몽골 장로교 연합신학교 에르덴 호익 전도사, 나랑체체 전도사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원은 선교사들과 영적, 물적 관계의 끈을 잇는 최소한의 표현이며,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사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같은 눈으로, 선교지를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Universal Care 는 이렇게 일할 것입니다.

첫째, 단기 Outreach 를 통하여 선교사의 교회개척 사역에 헌신할 것입니다. 이 Outreach 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육, 찬양, 의료, 긍휼사역 등 모든 장르의 달란트로 종합적인 선교의 동역자로 설 것입니다.

둘째, 선교사 자녀를 위한 MK(Missionary Kids)를 위한 사역자가 계속하여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단기간의 한글 교육, 또한 뮤직 캠프, 등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사역은 선교사로 하여금 더욱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차세대의 준비된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셋째, 선교사를 위한 Guest House 를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물론, 독립적인 건물을 가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방 하나를 단기 입국한 선교사에게 내어 드리는 것도 귀한 나눔과 섬김일 수 있습니다.

넷째, 선교지에 대학 등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선교지를 좀더 안정적으로 Support 하며, 그 민족의 리더십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예배를 통해 선교 헌신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한국 교회에 선교의 불을 더욱 크게 지피는 것입니다. 이것의 하나의 모습이 바로 Mission Conference 이기도 합니다. 매 분기(3,6,9,12 월)마다 드려지는 예배는 열린예배로 선교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 1:6)

이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제12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찬양인도 : 흥성훈 목사

강사 : 정태화 목사

러시아 연해주 선교사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후원선교사

황필남 선교사 (몽골) www.pnhwang.com

김우섭 선교사 (러시아)

배성호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www.josephbae.com

디아스포라신학교 (김영제목사)

정태화 선교사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신동주 선교사 (필리핀 양겔레스), 주바울 선교사 (B국)

엄천영 선교사 (GBT 선교회)

협력선교사 : 송찬송 선교사(캄보디아)

All Nations Christian Academy (ANCA) – MK 국제학교

Universal Care 장학금

: 몽골 장로교 신학교 에르덴 호익, 나랑체책 전도사

Universal Care

www.cyworld.com/universalcare